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633-01

부산학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2023.06.

부산도서관

제출문

부산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학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3년 6월 25일

연구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차 철 욱

연구진

책임연구원 차철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문학박사

공동연구원 차윤정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문학박사

보조연구원 배은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박사수료

<목차>

I . 서론	1
1. 연구목적 및 추진전략	1
1) 연구목적	1
2) 연구 필요성	1
3) 추진전략	2
2. 연구 수행범위	3
3. 연구참여자	3
4. 연구기간	3
II . 부산학과 부산학아카이브	5
I . 지역학과 지역	5
1) 지역학의 개념	5
2) 지역학의 의미	6
2. 부산학의 성립과 개념	6
1) 부산학의 필요성	6
2) 부산학의 성립	7
3) 부산학의 개념	7
3. 부산학아카이브	9
1) 지역학 아카이브 현황	9
2) 부산학아카이브 개념과 목표	11
III . 지역학 아카이브 사례연구	13
1. 국내	13
1) 경기도메모리	13
2) 공주학아카이브	15
3) 제주학아카이브	17
4) 이천문화원 아카이브	19
2. 해외	21
1) 뉴욕 공공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21
2) 캘리스피어(Calisphere)	22

3. 부산	24
1)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4
2) 부산연구원	26
3) 부산박물관	27
4) 부산근현대역사관	28
5)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29
4. 지역학 아카이브 사례분석의 시사점	30
1) 국내 및 해외	30
2) 부산 지역	35
IV. 부산학아카이브 운영 분석	37
1. 부산학아카이브 운영	37
1) 부산학아카이브 구축	37
2) 수집방법	37
3) 자료수집 한계	37
2. 자료구축 현황	37
3. 서비스 분석	40
1) 분류체계에 의한 서비스	40
2) 자료검색을 통한 서비스	41
3) 자료 열람방식	42
V. 지역학 아카이브 전문가 자문과 시사점	43
1. 타지역	43
2. 부산 지역	48
VI. 수집대상 기관의 자료와 특징	53
1. 부산학 관련 기관별 자료 현황	53
1) 박물관, 미술관	53
2) 전문 연구기관	54
3) 공공기관	56
4) 문화원	57
5) 시민단체	58
6) 문화예술기관	58
7) 공동체	59

2. 시사점	60
VII. 부산학아카이브 개선방향	61
1. 자료수집 대상과 아카이브 범위	61
1) 자료수집 대상	61
2) 아카이브 범위	62
2. ‘부산학아카이브’ 명칭 재고	63
1) ‘부산학아카이브’ 명칭의 의미	63
2) ‘부산학아카이브’ 명칭 변경	64
3. 자료수집 전략	64
1) 수집정책의 수립	64
2) (가칭)부산학 연구기관 협의회 신설	65
3) 자료 전수조사 실시	65
4) 자료생산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65
5) 수집방법 결정	65
6) 수집자료의 평가	66
7) 서비스방식 결정	66
4. 서비스 전략	66
5. 단계별 추진전략	67
1) 단기계획	67
2) 장기계획	68
6. 인프라 구축	68
1) 인력정비	68
2) 저작권 미해결 자료의 서비스 방안	69
VIII. 부산학아카이브 활용 및 홍보 방안	71
1. 지역학 아카이브 활용 방안	71
2. 부산학아카이브 홍보 방안	72

I . 서론

1. 연구목적 및 추진전략

1) 연구목적

① 부산학아카이브 기능 및 역할 정립

- 부산학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부산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서비스 방법을 정립
- 부산학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부산 지역 부산학 연구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 부산학아카이브의 활용을 위한 연구자·시민의 참여 방안 마련

② 부산학아카이브 정체성 확립 및 차별화된 아카이브 구축

- 부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조응하는 부산아카이브 구축
- 부산시민과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주요 매체로서 부산학아카이브 위상 확립
- 부산학 관련 다양한 연구기관의 생산자료를 통합·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 확립

③ 부산학플랫폼 기능 수행을 위한 아카이브의 체계적 구축

- 부산학 관련 자료의 수집 방법과 효율적인 서비스 개선
- 구축된 부산학아카이브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생산의 가능성 타진
- 부산 시민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문화매개체로서의 가치 발견

2) 연구 필요성

① 시대적 요구

- 시민들의 자기 삶터에 대한 가치의 재인식과 지식탐색 노력이 왕성해짐.
- 지방자치단체나 문화기관이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에서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
- 정보의 습득 방법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최근 디지털화에 의한 빠른 접근 방법이 도입되고 있음.

② 부산학 연구의 필요성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의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려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문화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에서 부산학 관련 연구성과를 다량 생산하였음.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자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 평생 살아온 지역에 대한 관심 재고

③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아카이브 구축

- 각 기관별 부산학 관련 자료생산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기관별로 소장 혹은 서비스하여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음.
- 최근 기존 분과학문별 연구 흐름에서 지역을 단위로 한 총합적이고 융복합적인 연구자료가 다수 생산되었음.
- 지식의 소비를 기존의 연구자 중심에서 시민대중으로 확산하는 분위기 고조
- 연구기관별 연구 혹은 자료생산과 관련한 정보교환과 시민들의 지식공유를 위해 부산학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함.

3) 추진전략

① 지역학 아카이브의 사례 및 연구분석

- 국내에는 경기도메모리, 공주학아카이브, 제주학아카이브, 이천문화원아카이브 분석
- 해외에는 뉴욕 공공도서관 디지털 컬렉션과 캘리포니아 대학 도서관이 운영하는 캘리스피어 아카이브 분석
-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연구원 아카이브 플랫폼, 부산박물관과 부산근현대역사관 아카이브 분석

② 부산학아카이브의 자료구축 현황과 서비스 분석

- 자료구축의 성과, 자료의 특징, 수집방법과 한계 분석
- 다양한 요소에 의한 분류체계와 검색 서비스의 내용과 한계 분석

③ 지역학 아카이브 전문가 면담

- 경기도메모리, 제주학아카이브 전문가와 면담 및 시사점 추출
- 부산연구원,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근현대역사관 아카이브 담당자와 면담 및 시사점 추출

④ 부산학아카이브 개선사항과 활용방안 마련

- 자료수집 대상과 아카이브 범위 재설정
- 부산학아카이브 명칭의 문제점 분석
- 자료수집과 서비스 전략 분석
-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인프라 구축
- 아카이브 활용과 홍보 방안 마련

2. 연구 수행범위

- 부산학아카이브 구축 방향 정립
- 부산학아카이브 운영 및 서비스 방안 분석
- 부산학아카이브 개선사항 수립
- 부산학아카이브 활용 및 홍보 방안 수립

3. 연구참여자

- 연구책임자: 차철욱(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공동연구원: 차윤정(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 보조연구원: 배은희(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수료)

4. 연구기간

- 2023년 3월 28일~6월 25일

II . 부산학과 부산학아카이브

1. 지역학과 지역

-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각 지역에서는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 문화와 지역 경제의 부흥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남.
- 지역민의 정체성 및 문화적 특징을 밝혀낼 수 있는 지역학 진흥의 필요성이 대두
- 국내 지역학 연구는 1993년 서울학연구소 창립과 함께 서울학을 시작으로 제주학, 부산학, 경기학, 경주학, 원주학, 충청학, 강원학 등으로 확산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1) 지역학의 개념

- 지역학은 지역이라는 지표면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유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여 지역을 더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 인간 중심의 가치들을 찾고 그를 통해 더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실천학문이라 할 수 있음.¹⁾
- 지역학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특정 지리적 영역(공간)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서 지역의 역사, 언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을 규명하고 이를 분석, 비교,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말함.
- 지역학은 지역의 특징 및 정체성을 찾아내는 학문임.
- 지역학은 지역 자치, 개발, 협력, 문제 해결, 지역정책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지역 연구를 포함하기도 함.
- 학문 범주로서 지역학은 단순히 분과학문에서 지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분과학문 간 경계를 넘어 총체성과 포괄성을 갖고 학제적으로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임. 즉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이 종합된 다원적이고 융합적인 학문
- 지역학 연구의 관점은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전체와 부분의 관계성 속에서 부분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연구와 지역 자체의 독자성과 자율성에 중점을 둔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음.

1) 고석규(1994), 「서울학 연구방법 시론 : 역사학의 관점에서」, 『서울학 연구 서설』,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 지역의 의미²⁾

- ① 특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지역학이라고 할 때, 지역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지님.
 - 첫째, 지역은 일정한 규모의 사람들이 비교적 독립적인 사회적 틀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일정 규모의 공간. 이때 지역은 공간의 규모에 따라 마을 수준에서부터, 좀 더 넓은 범위인 도시나 국가, 그리고 해외 지역 등으로 확장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학은 공간적 규모에 따라 좁게는 마을을 단위로 하는 연구로부터, 넓게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등의 연구와 나아가서는 더 큰 단위인 해외 지역 연구 (Area Studies)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
 - 둘째, 지역은 단순한 지표면의 일정 공간을 넘어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반이 되는 지역공동체라고 규정할 수 있음. 이때 지역공동체로서의 지역은 물리적 영역(공간)으로서의 지역 경계를 넘어서기도 함.
- ② 지역학은 지역이라는 공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그곳을 기반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일구어온 각 지역의 사상, 언어,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을 토대로 지역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음.

2. 부산학의 성립과 개념

1) 부산학의 필요성

① 부산 정체성 발견³⁾

- 부산은 항구도시로서 역사적으로 해양을 통한 교류가 활발,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
- 개항,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산업화 등 한국사회 격변기를 거치면서 근대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
- 부산 사람들의 다양한 삶에서 공유되는 부산의 지역 정체성의 발견으로 가능
- 2013년 부산직할시 승격 50년 기념사업은 부산의 과거를 성찰하고,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계획으로 부산학과 직접적으로 관련
- 부산학은 해양도시, 영화도시, 등 부산의 도시 브랜드 정립의 초석이자

2)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개론』, 2017.

3) 오재환, 「부산학, 지역 정체성 재발견과 미래 발전의 플랫폼」, 『BDI 정책포커스 학술저널』, 부산연구원, 111호, 2011, pp.1-4.

정체성 확립과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도시발전의 기초를 제공

-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가입도 부산의 영화문화와 영화기록물, 다양성과 소수문화 존중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서 출발 가능

② 부산 발전의 토대 구축

- 부산학은 부산의 관점에서 현실진단과 문제 해결, 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 등을 실천하는 과정
- 부산의 형성·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지역 정체성을 찾아 그 기반 위에서 미래를 모색하는 종합 연구
- 사람·공간·환경 등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의 실천적 가치를 추구
-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집중화에서 탈피해 지역의 독자적 발전을 위한 전략이 요구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로서 지역학이 필요
- 융합과 다양성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뿌리 찾기에서 시작해 미래 발전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③ 부산 사람들의 자긍심 회복과 주체성 확립

-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국가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의 하부 단위 또는 주변부로서 바라보던 부산을, 탈국가적 관점에서 독립성을 지닌 공간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생김
- 부산은 ‘텅빈 공간’이 아닌 부산 사람들이라는 지역 주체들의 삶이 녹아 있는 장소임을 인식
- 부산을 삶의 장소로써 새롭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지역 주체로서 부산과 부산의 역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고 부산 사람으로서의 주체성 확립
- 탈국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부산 지역 연구를 통해, 부산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부각됨으로써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삶에 대한 자긍심 회복

2) 부산학의 성립

- 1980년대 후반 이후 부산 지역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개별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
- 1988년 ‘지역사회연구회’ 결성을 비롯하여 1990년대를 거치면서 축적

된 지역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교수·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함.

- 기존의 분야별 부산 연구성과를 조사·목록화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역사학과 사회과학 위주의 지역 연구에 문화론적 관점이 도입됨.
- 문헌 정리와 사료 발굴을 넘어 학제 간 연구를 통한 부산학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전공에 따른 분야별 부산 연구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공통의 인식론과 문제의식에 기초한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됨.
- 부산이라는 공간을 연구영역으로 하면서 독자적 연구방법과 분석틀을 구축해 지역의 현재·과거·미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부산학의 필요성이 제기됨.
- 1994년 부산경남역사연구소 발족. 지역사 연구와 연구성과의 대중화를 지향. 『시민을 위한 가야사』(1996)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2003) 『시민을 위한 부산인물사』(2004) 등 역사 대중화 시도
-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부산학연구문헌목록집』(2001) 간행, 부산학연구센터(2004) 설립, 부산학 관련 다양한 학술연구용역 수행
- 2003년 부산발전연구원 부설 부산학연구센터가 설립되어 부산학 정립을 위해 노력, 각 대학에서도 관련 연구소 등을 통해 부산학 연구 및 부산학 강좌 개설 등으로 부산학 연구가 활성화됨.

3) 부산학의 개념

- 부산학은 부산이라는 자연적·지리적 공간과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 온 부산 사람들의 언어와 사상, 역사와 유·무형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융합학문
- 부산학은 부산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지역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기도 함.
- 부산학은 부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 바람직한 삶의 방향 구현’ 이자, 부산이라는 공간을 ‘더 나은 삶의 공간’ 으로 만들기 위해 실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학문
- 지역학으로서의 부산학은 연구의 대상이 도시 부산이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국가적 성격을 띠며,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부산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 학문이라는 점에서 실천적인 학문의 성격을 가짐.

3. 부산학아카이브

1) 지역학 아카이브 현황

-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지역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정체성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기록물과 정보들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
 - 각 지역별로 그동안 공공기록 또는 국가 중심의 기록 관리에 치우치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 민간기록물의 DB 구축’ 또는 ‘지역 기록화’ 작업 같은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중심으로 경기도 문화자원 수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기도메모리’가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메모리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미래 세대에 전승을 통해 경기도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
 - 경기도메모리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 정보를 집대성하고 경기도민의 발자취와 활동을 기록화하여 경기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함.
 -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도메모리는 경기 지역사를 포괄적으로 기록화하되 도시 공간 계획 관점에서 기록화하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커뮤니티와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기록화하고자 함.
- ② 공주학아카이브는 ‘공주학의 토대 구축을 위한 아카이브’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형, 참여형, 융합형 그리고 지속형 아카이브라는 방향성을 설정하여 운영 중. 2014년 5월 공주대학교 내 공주학연구원이 개관하면서 공주학 관련 자료를 정리·연구하고, 지역축제에 참여하거나 시민교육센터 운영 등을 하다가, 2017년 공주학아카이브를 구축
- ③ 강원연구원의 강원학연구센터 주관으로 강원학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서비스하기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2019년 8월 강원학아카이브 구축센터를 설립함.⁴⁾
- 강원학아카이브 구축센터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정

4) 정지연, 「강원학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이론적 연구」, 『인문과학연구』 62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보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위한 ‘강원학아카이브시스템’ 구축

- 특히 강원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학아카이브를 통해 강원 지역의 근현대 자료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 시민기록가 양성, 다양한 자료를 DB 구축으로 서비스하는 라키비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④ 제주학연구센터는 2014년 4월 제주학 인터넷 온라인 아카이브 (<http://www.jst.re.kr>)를 오픈하였음.⁵⁾

- 제주학아카이브는 제주 관련 고문서, 고문헌을 비롯하여, 제주학 단행본, 논문 등의 연구물 DB, 영상자료(CD, DVD), 사진, 음향(구술) 등의 기본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짐.
- 제주학아카이브의 활용은 학자나 일반인 대상으로 학문적 자료를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제주학 자료의 통합 교류 및 글로벌화, 제주학 관련 자료 활용 및 부가가치 상승으로 지식 자산화에 두고 있음.
- 표준적인 분류체계와 효과적인 정보 제공으로 사이트 간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체계성, 대중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
- 제주학아카이브는 자료구축과 정보화만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며, 탑재된 자료들은 다시 연구로 피드백이 이루어져 새로운 연구를 위한 원천 소스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정책연구로 도민들의 삶의 발전에 환원될 수 있어야 함.

⑤ 전북학연구센터는 과거 호남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현재의 전북 몫을 찾아야 한다는 ‘전북 몫 찾기’와 함께 전북인의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전북학아카이브 구축을 시작하였음.

- 전북학 아카이브는 도내 박물관, 도서관과 협력하여 전북 지역 자료를 일원화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7년 전북학연구센터는 전북의 정체성과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목표로 준비하여 2019년 전북연구원 내 독립기관으로 발족하였음.

5) 최혜경, 「제주학아카이브와 제주도 무형유산 자료의 구축」, 『무형유산학』 5권 1호, 무형유산학회, 2020.

- 전라북도와 전북학연구센터에는 전북학DB를 구축, 전북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자료들만 제공 중

2) 부산학아카이브의 개념 및 목표

① 아카이브의 개념

- 개인이나 조직이 사적 또는 공적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 중에서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증거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선별된 영구 보존기록. 또는 전문적으로 보존하는 조직이나 이를 위한 시설 및 장소로 여러 의미로 사용됨⁶⁾
- 국내에는 주로 공공기관의 현용 기록물 중 영구 보존 대상이 되는 기록과 이를 이관 받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주요 아카이브로 지칭했음.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 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방송국, NGO 단체, 마을공동체 등이 자신의 기관과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기록물을 정리하고 활용되게끔 공개함으로써 기관과 단체를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관이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또한 2019년에 개원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은 시민 속의 일상 아카이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여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 이외에 시민들이 생산한 ‘서울기록’을 수집하고 기록화하는 사업과 기록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핵심 과제로 하고 있음.
- 이에 내용과 범위 및 형태에 있어서 아카이브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임

② 부산학아카이브 구축의 추진 배경

- 부산학 연구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축적,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들의 산재 등으로 인한 부산학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등을 위한 부산학 통합 아카이브 구축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요구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
- 부산학 관련 자료들을 서비스함으로써 부산학 연구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꾀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
- 부산 지역사회의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 증대(DB 구축 및 활용에 대한 관심)

6) 한국기록학회 편,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③ 부산학아카이브의 개념

- 부산학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관리하여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한편, 부산 사람들은 물론 타 지역 사람들에게 부산을 이해하고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
- 부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산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부산학 자료의 집합과 서비스를 통해, 부산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디지털 문화매체

④ 부산학아카이브의 방향성

- 부산학아카이브의 플랫폼

⑤ 부산학아카이브의 목표

- 문화자원의 집성과 관리
- 지식 자산 가치의 극대화
- 유산 홍보와 서비스 확대
- 문화자원의 세대 전승 및 교육
- 부산의 정체성 강화

⑥ 부산학아카이브의 실천

- 문화자원의 수집 및 기록화
-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
- 다양한 아카이브 콘텐츠 개발
-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접근성이 용이하고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Ⅲ. 지역학 아카이브 사례연구

1. 국내

1) 경기도메모리

서비스 사이트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	https://memory.library.kr
기관유형	공공기관
주요 내용	콘텐츠, 컬렉션, 지역, 타임라인
소장 및 생산자료	도서 시리즈, 아카이브 컬렉션, 주제별 컬렉션, 지도, 지역명
기타	이달의 콘텐츠와 기획 콘텐츠 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

☐ 서비스 방식

-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55,042건(2023년 5월 기준) 기록물 소장
- 컬렉션은 도서 시리즈, 아카이브 컬렉션, 주제별 컬렉션이 있고, 여러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의 특성에 따라 지도와 지역명을 통해 기록을 검색할 수 있음. 시대별, 연대별 타임라인의 형식으로도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대부분 경기도메모리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 서지정보만을 게재하고 원본 자료는 생산기관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게재한 경우도 있음.
- 기록물의 미디어유형, 자원형태, 주제별, 생산지, 지역, 장소 등을 기준으로 다중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 이달의 자료, 기획콘텐츠, 전시로 아카이브에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음.

☐ 서비스 자료의 특징

- 경기도 내 공공기관 특히 지역학 기관과 문화원, 도서관, 문화기관이 생산한 도서관행물, 보고서, 개인의 기증 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 커뮤니티와 도민들의 일상생활 기록화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음.

☐ 시사점

- 경기도메모리와 관련된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내의 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기록물을 수집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홈페이지 내에도 함께 하는 기관을 게시해 놓고 있음.
- 타 기관의 소장 자료 게재 사이트 유입 목적을 고려해 일부 자료는 링크로 제공하고 있는 등 기관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협력 방식을 적용해 기록을 수집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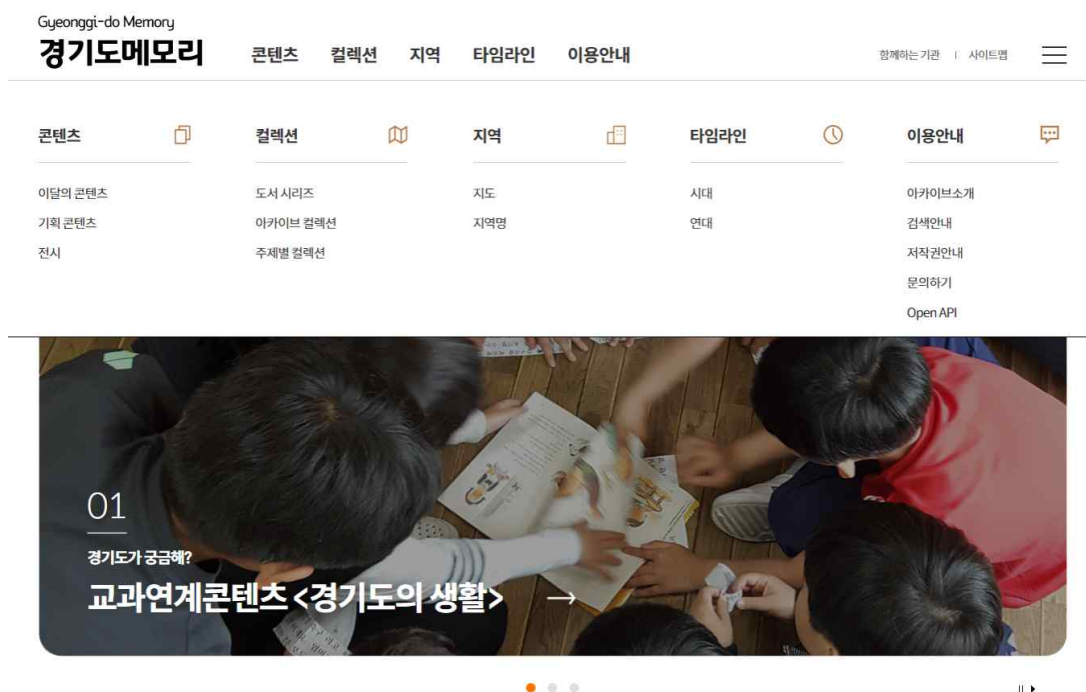


그림 1 경기도메모리 메인 화면

② 활용

- 경기도메모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목, 생산자, 발행처, 설명, 목차에 대한 키워드 검색과 경기도 지도기반의 지역 서비스, 자료가 다루고 있는 시대정보 기반으로 타임라인 서비스, 구축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된 온라인서비스로 구성
- 검색한 자료는 자료형태, 생산자, 시대, 원본 소장처, 주제 패킷 구분을 통해 볼 수 있으며 등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주제별 온라인 전시를 구성
- 경기도메모리 이용현황은 월평균 이용률이 약 2만 건으로 일평균 5~600건 정도 이용
- 이용자 대상별 서비스
 - 1차 대상: 경기도 연계 기관. 경기도메모리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경기도

- 내 행정기관, 공공기관, 문화기관, 공동체 등
- 2차 대상: 연구자. 지역학, 역사학, 인문학 등 관련 학문 분야를 포함한 연구자
 - 3차 대상: 일반 국민 대상, 지역 역사/문화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콘텐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 지속가능한 아카이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친숙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며 쉽게 활용 가능한 웹 콘텐츠 서비스가 중요함. 경기도메모리의 기록정보와 연계한 다양한 웹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시 공간에서 디지털 전시를 진행
 - 테마콘텐츠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근현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온 경기도민들의 삶의 구체성과 다양성을 구술기록으로 담아내는 <경기도민이야기>를 매해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 학습에 활용. 초등학교 4학년 지역화교과서 ‘경기도의 생활’을 분석하여 개발한 <경기도가 궁금해?> 콘텐츠가 온라인 학습에 활용되고 있음.
 - 디지털기록을 물리적 공간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경기도메모리의 소장기록을 활용하여 경기천년의 시간을 담은 ‘경기천년메모리’ 기록콘텐츠 서비스-경기도를 천년의 시공간을 품은 도서관으로 보고 특별한 기억과 이야기를 한 곳에 보여주기 위해 ‘기억으로 만나 미래를 열다’라는 컨셉으로 물리적 전시공간에서 디지털 기록과 도서관의 목록카드 형식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에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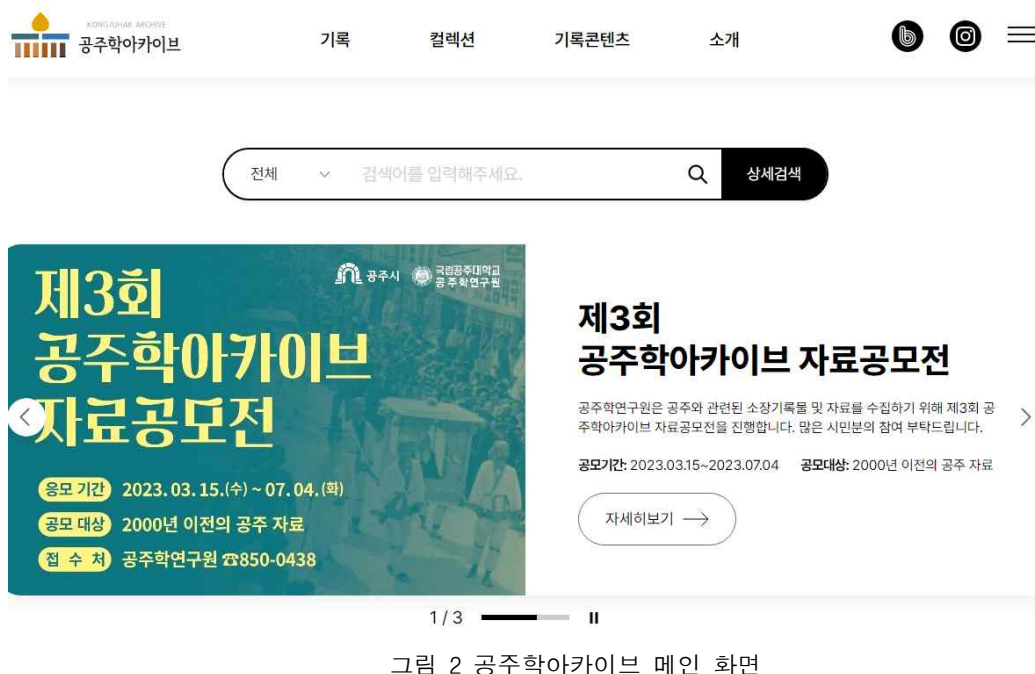
2) 공주학아카이브

서비스 사이트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kjha.kongju.ac.kr
기관유형	대학 내 연구원
주요 내용	기록, 컬렉션, 기록콘텐츠
소장 및 생산자료	전체컬렉션, 기증자컬렉션
기타	이달의 콘텐츠와 기획 콘텐츠 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

☐ 서비스 방식

- 공주시가 지원하고 공주학연구원이 구축, 운영하는 아카이브로 8만여 건 (2022년 12월 기준)의 기록물 소장
 - 기록의 유형을 기본 카테고리로 하여 기록물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록물과 관련된 장소를 지도로 표기해 기록물과 함께 보여주고 있음.
 - 기록물의 유형, 주제, 시대, 출처를 기본 분류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음.
 - 이달의 자료, 기획콘텐츠, 온라인 전시로 아카이브에 흥미를 끌 수 있는 기록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10년간 수집된 기록물의 활용과 교육에 집중하고 있음.
- ☐ 서비스 자료의 특징
- 주로 민간 영역 기록물 수집
 - 시민 대상 자료 공모전 개최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수집했거나, 시민 기록활동가를 양성하여 기록화 작업한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음.
 - 컬렉션은 ‘학교 컬렉션’과 ‘새마을운동 컬렉션’과 같은 주제 컬렉션과 ‘사진그림엽서 컬렉션’, ‘지도 컬렉션’과 같은 유형별 컬렉션, ‘시민기록활동 컬렉션’, ‘기증자 컬렉션’ 등 출처와 관련된 컬렉션 등 다양한 요소로 묶어 보여주고 있음.
- ☐ 시사점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록물 수집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시민기록활동가 양성 과정을 통해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② 활용

- 공주학아카이브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기록물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것과 그 기록물을 활용한 기록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제별 컬렉션이나 지역신문 검색 연동, 공주학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전시콘텐츠 구현 등을 커스터마이징함.
- 오픈형 아카이브의 가장 쟁점이었던 이용자가 소장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참여형 아카이브를 실현함.
- 검색기능의 확장을 통한 홈페이지 고도화-검색기능을 위해 적용된 솔라(Solar)시스템이 이용자에게 편리한 검색페이지를 제공하는 부분이나 개발된 콘텐츠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플러그인에 일부 제약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실시. 확장된 검색기능으로 검색에 누락되는 기록물이 없도록 함.
- 기록물이 가진 장소성을 보여주는 서비스-홈페이지에 수록된 공주 기록물의 특수성을 표현하고자, 기록물의 메타항목에 위치정보(경도, 위도)를 기입하여 웹 지도에 표기함. 하나의 지도에 각 기록물의 위치를 일시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기록물이 가진 장소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봄.
- 기록물마다 적용된 키워드 항목을 누적, 합산하여 공주의 주요 키워드 및 연관어를 도출함으로써, 공주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역할
- 핵심적인 과제는 기록별 저작권 이용범위를 별도로 설정하는 문제. 디지털아카이브의 목적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인데, 기록마다 저작권 이용범위가 달라 사진의 경우 저장기능을 일괄적으로 막아 자유롭게 저장하여 이용할 수 없음.

3) 제주학아카이브

서비스 사이트	제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jst.re.kr/jejustudiesDBList.do?cid=01
기관유형	공공기관
주요 내용	분야별, 매체별
소장 및 생산자료	연구지원사업, 학술교류사업, 교육사업 등의 연구보고서와 단행본, 제주 역사와 관련한 고문헌, 사진 등 유형별 자료
기타	

① 서비스

□ 서비스 방식

- 제주학연구센터가 구축,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브로 53,000여 건(2023년 5월 기준)의 기록물 소장
- 단행본, 자료집, 보고서 등의 기록을 분류한 분야별, 문헌, 사진, 영상, 음성 등의 유형별 분류로 기록을 보여주고 있음.
- 제목, 내용, 유형, 저자명, 소장처, 연도로 세부 검색을 할 수 있게 해놓았음.

□ 서비스 자료의 특징

-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지원사업, 학술교류사업, 교육사업 등에 따른 연구보고서, 단행본과 연구 과정에서 수집되는 원천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제주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타 문화기관이 제주도에 대한 주제로 생산한 기록물은 링크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음.

□ 시사점

- 분류체계 자체를 검색 메뉴로 사용하고 있어 전문가들이 기록물 검색하는 데에는 어려움은 없으나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가 없어 시민들이 접근하고 흥미를 느끼며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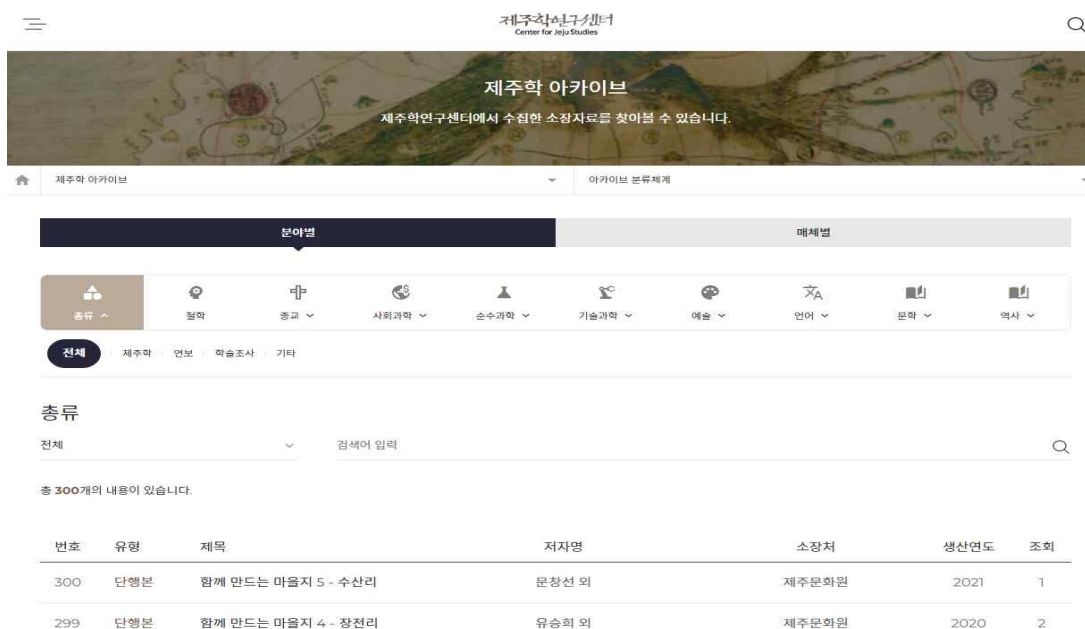


그림 3 제주학아카이브 메인 화면

② 활용

- 1차적인 연구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창작에도 풍부한 원소스를 제공- 특히 제주 민속 관련 연구 자료들에는 제주사람들의 삶이 풍부하게 남아있는데, 제주 무속신화 본풀이, 제주해녀문화 등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음. 무형유산 자료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자료제공 서비스
- 제주 관련 연구 및 교육,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자료를 서비스(온오프라인 동시)
- 체계적인 제주학 자료를 서비스함으로써 대내외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 현대 관광이 지향하는 문화관광지로서의 제주를 소개하는 데도 활용이 가능
-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의 기능을 갖추고 문화유산 선양을 목표로 LAM(Library, Archive, Museum)의 성격을 지니면서, 제주학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 서비스함. 이용자 친화적인 지역인문자원 통합 관리 모델을 찾아서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와 열람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4) 이천문화원 아카이브

서비스 사이트	이천문화원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2000archive.or.kr
기관유형	민간 기관
주요 내용	발간물 아카이브, 사진 아카이브, 스토리 아카이브, 민속 아카이브
소장 및 생산자료	이천시지, 민속조사보고서, 이천인문학/이천학, 시민기록자/마을지 등의 발간물과, 이천문화원이 소장한 사진, 이천의 민요, 전통민속놀이, 창작공연 등
기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제공

① 서비스

□ 서비스 방식

- 이천문화원이 경기도메모리의 시범 사례로 참여했으며 문화원 소장 자료의 ‘보관’ 보다 ‘활용’에 중점을 두고 구축함. 현재 발간물 아카이브 337건, 스토리아카이브 480건(2023년 6월 기준) 구축 운영

-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디지털아카이브'와 오프라인 상에서 자료를 찾고 열람, 복사할 수 있는, 아카이브문화공간 형태의 '이천시민기록관'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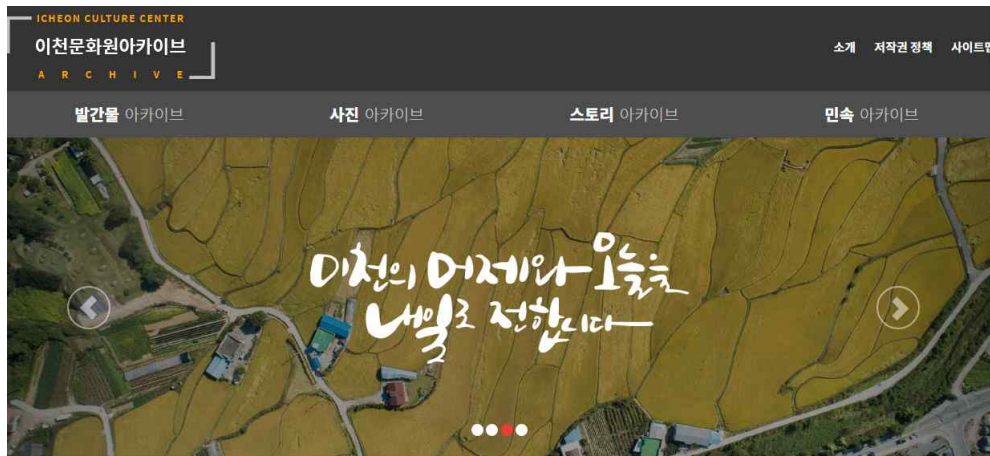


그림 4 이천문화원 아카이브 메인 화면

- 발간물의 경우 책제목, 목차, 해제로 검색 구분을 해 놓았고, 사진 아카이브는 주제, 지역, 시대별로 세부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서비스 자료의 특징

- 이천문화원이 소장한 자료들이 위주이며, 시민기록자 활동으로 수집, 조사, 발굴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음.
- 시민기록자 활동으로 생산된 기록물 또한 단행본 형태의 발간물로 제공하고 있음.

☐ 시사점

- 적은 예산으로 문화원 소장자료라는 한정된 자원으로 구성 되어 있음.
- 기록물을 활용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여 기록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함.

② 활용

- 이천아카이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발간물아카이브, 사진아카이브, 스토리아카이브, 민속아카이브로 분류, 서비스되고 있음.
- 여러 이용자 계층 중 시민 서비스를 중심에 두고, 이천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서비스함.

- 기록자료를 새롭게 분류, 정리하여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는 큐레이션 중심 아카이브를 서비스함.
- 청소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정보의 원천을 제공함.
- 이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양질의 콘텐츠를 재생산하기 위한 플랫폼의 역할 수행
- 자료의 수집과 조사, 발굴 등 아카이브 활동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시민기록자 과정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직접 이천을 기록하게 함.

2. 해외

1) 뉴욕 공공도서관 디지털 컬렉션(The New York Public Library Digital Collection)

서비스 사이트	뉴욕 공공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홈페이지	https://digitalcollections.nypl.org/
기관유형	공공기관
주요 내용	아이템, 컬렉션, 부문
소장 및 생산자료	과거 사진, 빌리로즈 컬렉션, 프리드먼-아벨레스 사진 컬렉션 지역의 장소, 인물, 사물 등과 관련한 디지털 자료
기타	

□ 서비스 방식

- 뉴욕 공공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포털로, 859,692건(2023년 6월 기준)의 공개된 기록물을 볼 수 있음.
- 공개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도서관에서 직접 열람 가능함.
- 메인 화면에서 ‘최근 디지털화된 항목’, ‘사진 모음’, ‘뉴욕에 관한 컬렉션’, ‘패션 컬렉션’ 등 유형이나 주제별로 기록물을 보여주며 사이트를 찾는 시민들이 기록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함.
- 세부 검색으로 들어가면 주제, 이름(생산자), 컬렉션, 장소, 장르, 출판사, 부문, 유형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분류를 몇 가지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구술자료의 경우 프로젝트에 따라 녹취문이나 음성을 제공하고 있고 일부는 도서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저작권 제한이 없는 기록을 등록하여 기록물을 다운받아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서비스 자료의 특징

- 뉴욕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디지털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 편향적이고 폭력적인 견해와 의견이 담긴 기록물도 사건과 관련된 자료로 중요한 기록임을 명시하고 있음.

□ 시사점

- 한정된 분류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기록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록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담아내어 키워드 형식의 분류를 하고 있음.
- 메뉴가 복잡하지 않고, 메인 화면에서 다양한 주제로 기록물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기록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저작권 제한이 없는 기록을 공개하여 기록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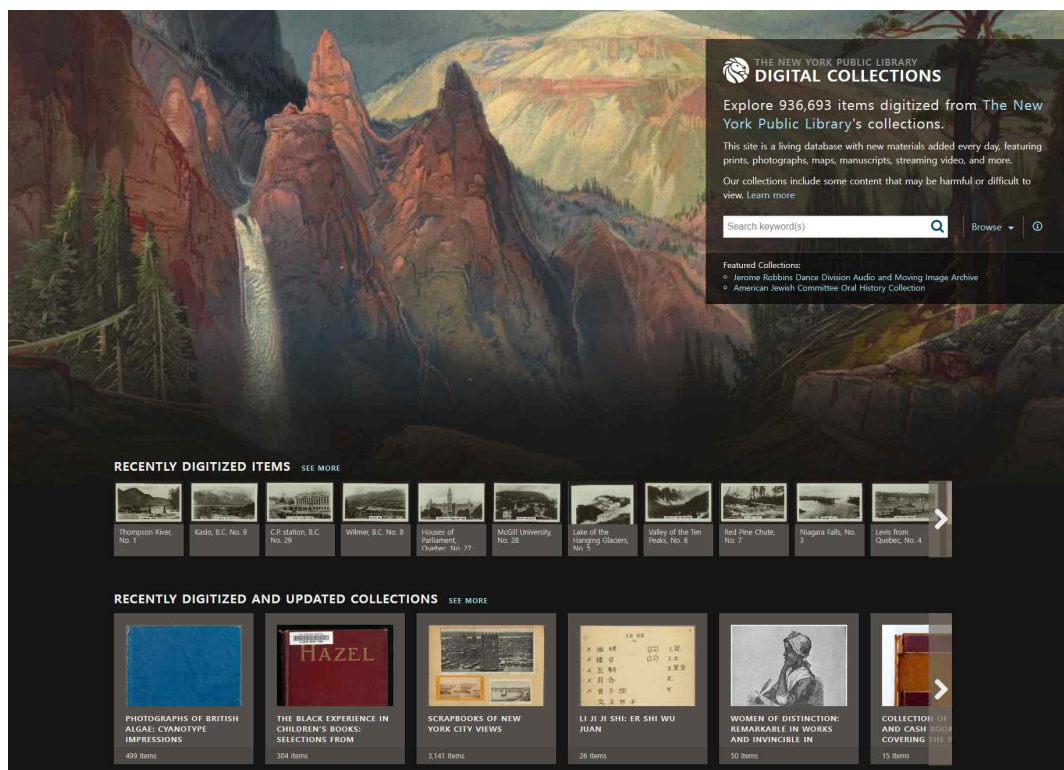


그림 5 뉴욕 공공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메인 화면

2) 캘리스피어 (Calisphere)

서비스 사이트	Calisphere
홈페이지	https://calisphere.org/

기관유형	대학 도서관
주요 내용	기부기관, 컬렉션, 전시
소장 및 생산자료	캘리포니아 역사학회 컬렉션 1860-1960, 로스앤젤레스 공공 도서관 사진 컬렉션, 평화봉사단 한국 아카이브, 한인 디지털 아카이브 등 주제, 유형, 생산자 등 다양한 형태의 컬렉션
기타	자료를 기증한 기관 명단을 소개,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

□ 서비스 방식

- 캘리포니아 대학의 디지털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2,100,000건(2023년 6월 기준) 이상의 기록 보유
-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OAC)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도서관, 특별 컬렉션, 아카이브, 역사협회 및 박물관을 포함한 기관과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가 협력하여 기록물 목록을 통합제공하고 일부는 정보만 제공하고 있음. 캘리스피어는 이 중 공개가능한 기록물을 모아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임.
- 기관별로 통합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음.
- 모든 기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
- 모든 항목은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미지, 문서, 비디오, 오디오 녹음 등의 기록에 맥락 정보를 제공함.
- 컬렉션을 들어가면 해당 컬렉션에 대한 서술형 정보와 OAC와 연계하여 컬렉션 안내서를 볼 수 있음. 그리고 항목 유형과 시대만으로 기록물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기록물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기부 기관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와 기록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함.

□ 서비스 자료의 특징

- 캘리포니아의 전역 300개 이상의 문화유산 단체(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역사협회)가 기증한 2,000건 이상의 컬렉션 보유(2023년 6월 기준)

□ 시사점

-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구축한 아카이브인 만큼 기관의 목록을 제공하고, 기증처 정보를 강조하고 있음.
- 기록물(컬렉션)의 목록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연계하여, 캘리스피어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기록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음.
- 컬렉션을 들어갔을 때 분류기준을 복잡하게 두지 않고 유형과 시대만으로 구분하여 간소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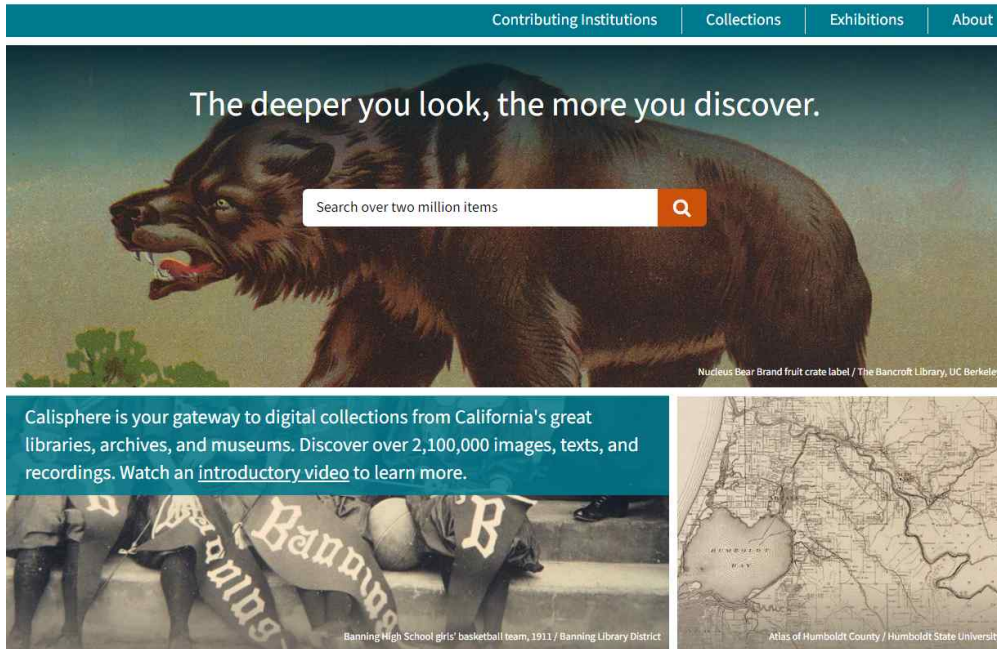


그림 6 캘리스피어 메인 화면

3. 부산

1)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서비스 사이트	부산광역시 역사/부산향토사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busandabom.net/index.nm?contentId=226&historyCd1=05
기관유형	공공기관
주요 내용	박물관, 기념관, 부산향토사도서관, 국가지정문화재, 부산시지정문화재
소장 및 생산자료	부산시사(4), 부산사료총서(29), 부산지명총람(9), 부산의 당제(1), 부산역사 대중서(4),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13), 부산구술문화총서(15), 부산의 자연마을(6), 자료로 본 부산 60년(1), 부산고지도(1), 향도부산(427), 시사자료(13), 부산금석문(1), 부산을 빛낸 인물(3) * ()은 2023년 5월 6일 현재 간행 건수임.
기타	부산문화다봄, 부산스토리텔링원형정보, 비짓부산 등 부산 관련 정보 제공

□ 서비스 방식

- 부산향토사도서관은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부산소개’ 하위 단위와 ‘부산광역시 역사’로 검색해서 접근할 수 있음.
- 필요한 자료는 부산향토사도서관에서 간행된 자료의 제목명만으로만 접근 가능하고, 열람자가 희망하는 키워드 중심의 검색은 불가능함.
- 자료의 서비스는 e-Book형식이 아닌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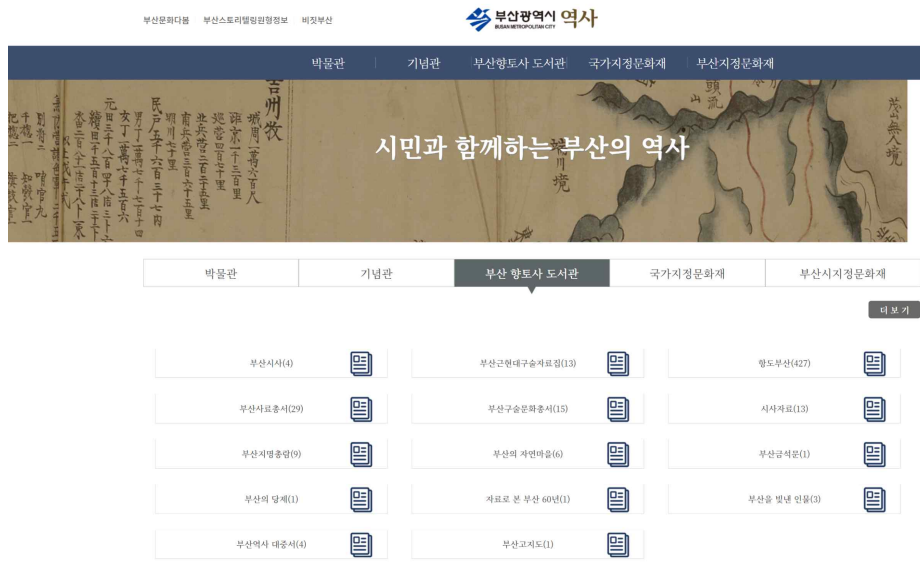


그림 7 부산향토사도서관 메인화면

□ 서비스 자료의 특징

- 부산의 역사, 문화, 민속 등과 관련한 연구성과, 현장 조사, 번역서, 자료 등을 생산 간행하고 있음.
- 최근 생산하는 자료는 구술사와 일상, 문화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성과물임.

□ 시사점

- 부산향토사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연구자 2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연구서와 대중서를 간행하고 있음.
- 자료는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나, 자료의 검색이나 열람이 불편한 상황임.

2) 부산연구원

서비스 사이트	부산연구원 아카이브 플랫폼
홈페이지	https://data.bdi.re.kr/index.nm;jsessionid=D7035DFF182175096451BC50D4EA0F3F
기관유형	공공기관
주요 내용	지도로 보는 부산, 사진으로 보는 부산, 지표로 보는 부산, 연구원이 바꾼 부산, 열린데이터 등
소장 및 생산자료	부산학시민총서, 부산학기획총서, 부산학연구총서, 부산학교양총서, 부산학미래연구, 부산학국제화연구 등 71건 * 2023년 5월 6일 현재 간행 건수임.
기타	

☐ 서비스 방식

- 부산연구원 아카이브 플랫폼을 개설 운영. 연도/부산연구원 연구형태 분류/제목과 키워드 검색 가능, 키워드는 자료 제목과 목차 검색이 가능
- 부산연구원 산하 부산학연구센터에서 생산한 총서는 ‘연구원이 바꾼 부산’을 통해 검색 가능
- 열린데이터에서는 자치단체,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정부 부처, 국외 통계작성기관의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이 가능함. 부산광역시 생산자료, 특히 구술자료수집 학술용역 보고서 등도 서비스하고 있음.

☐ 서비스 자료의 특징

- 부산학연구센터에서 생산한 자료는 대체로 생활사, 문화사 계통임.

☐ 시사점

- 부산연구원 생산자료는 학문 분과의 경계가 명확한 대학에서는 생산하기 어려운 주제들임. 일상과 문화 중심의 연구가 다양한 분과의 경계를 허물어야만 가능한데, 융복합적인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임.
- 부산연구원 아카이브는 부산연구원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서, 부산학 중심의 자료조사나, 내용 중심의 상세한 검색을 희망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음.
- 생산자료의 개별 상세정보가 없고, 목차만 소개되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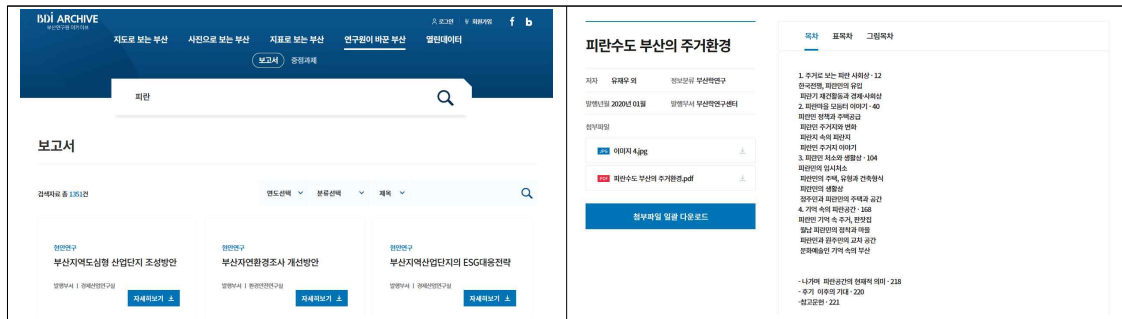


그림 8 부산연구원 아카이브 메인화면(좌) 및 자료서비스 내용(우)

3) 부산박물관

서비스 사이트	부산박물관
홈페이지	https://museum.busan.go.kr/busan/reserchexp03/list?srchCl=%EC%A0%84%EC%8B%9C%EB%8F%84%EB%A1%9D&srchKey=sj&srchText=&bbsNo=
기관유형	공공기관
주요 내용	유적조사(53건), 도서발간(138건), 발굴조사 보고서(54건)
소장 및 생산자료	학술조사연구보고서(48건), 전시도록(31건), 소장유물도록(5건), 연구논집(27건) * ()은 2023년 5월 6일 현재 간행 건수임.
기타	

□ 서비스 방식

- 부산박물관 홈페이지 ‘학술연구활동’을 이용하여 서비스
- 서비스 자료는 원문이 공개되지 않음. 발굴보고서류는 표지(jpg 파일)만 공개. 전시도록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으나 일부 jpg 파일로 공개하고 있음.
- ‘소장품정보’ 코너를 만들어 주요 소장품, 소장유물도록, e뮤지엄을 운영.
e뮤지엄은 전국 국공립, 법인/사립, 학교 박물관 등 전국박물관소장품의 이미지 제공(근대 부산 관련 사진 자료 포함)

□ 서비스 자료의 특징

- 부산박물관에서 생산한 발굴보고서와 전시도록, 소장유물 관련 자료임.

□ 시사점

- 부산박물관은 생산자료의 정보는 대부분 공개하고 있으나, 개별 자료의 상세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검색에 불편이 있음.
- 자료의 서비스는 표지만 공개하거나 부분적으로 원문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음. 도록 가운데는 판매용도 있음.



그림 9 부산박물관 아카이브 화면(좌) 및 자료서비스 내용(우)

4) 부산근현대역사관

서비스 사이트	부산근현대역사관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mmch/index
기관유형	공공기관
주요 내용	
소장 및 생산자료	전시도록(34건), 학술총서(22건) * ()은 2023년 5월 6일 현재 간행 건수임.
기타	

□ 서비스 방식

- 부산근현대역사관 홈페이지 ‘연구/출판’에서 정보 확인 가능
- 전시도록은 표지(jpg 파일)만 제공하거나, 일부는 원문(pdf 파일)을 공개하고, 학술총서는 원문공개(pdf 파일)함.
- 서비스 도서는 목차를 함께 공개하고 있으나, 검색창으로 검색은 불가함.

□ 서비스 자료의 특징

- 부산박물관에서 전시, 생산한 자료. 대체로 문화사와 일상사 관련 자료 생산이 많음.

- 특히 학술총서는 부산의 공간을 대상으로 한 생활문화사 중심으로 출판하였음.
- ☐ 시사점
 - 부산의 근현대사에서 의미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생활문화사 연구가 다수임.
 - 원문 열람은 pdf 파일을 무료 다운받을 수 있으나, 개별 자료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검색에 불편한 점이 있음.



그림 10 부산근현대역사관 아카이브 화면(좌) 및 자료서비스 내용(우)

5)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서비스 사이트	부산학센터
홈페이지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busanstudy.org)
기관유형	대학부설연구소
주요 내용	학술지 부산연구, 부산학총서, 콜로키움, 심포지움
소장 및 생산자료	전시도록(34건), 학술총서(22건) * ()은 2023년 5월 6일 현재 간행 건수임.
기타	

- ☐ 서비스 방식
 - 부산학센터 홈페이지 내 ‘연구 및 활동’ 으로 접속 가능
 - 학술지 부산연구와 부산학총서는 표지 이미지와 pdf 파일 모두 제공. 목차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편의 제공
- ☐ 서비스 자료의 특징
 - 부산의 역사, 정치, 사회, 물류 등과 관련한 연구총서를 간행
 - 표지와 목차 정보 제공, 내용 검색기능이 없음.
- ☐ 시사점

- 본 연구기관은 대학 연구시설임에도 생산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생산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자료의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음



그림 11 신라대학교 메인 화면(좌) 및 자료서비스 내용(우)

4. 지역학 아카이브 사례분석의 시사점

1) 국내 및 해외

① 주체의 성격에 따른 아카이브 구성

-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학 아카이브가 지역학 연구기관에 의해서 구축되었음.
- 경기도메모리가 도서관이 구축한 유일한 지역학 아카이브이며,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록물의 내용과 특징이 달라짐을 알 수 있음.
- 대부분 연구 결과물로서의 단행본이나 보고서를 기본적인 기록물로 등록해 놓았고, 사진과 영상 등의 기록물의 비중 또한 높았음.
- 시민 참여형의 아카이브 경우 시민들이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 또한 포함되어 있었음.
- 지역학 아카이브의 특성에 맞게 대상 기록물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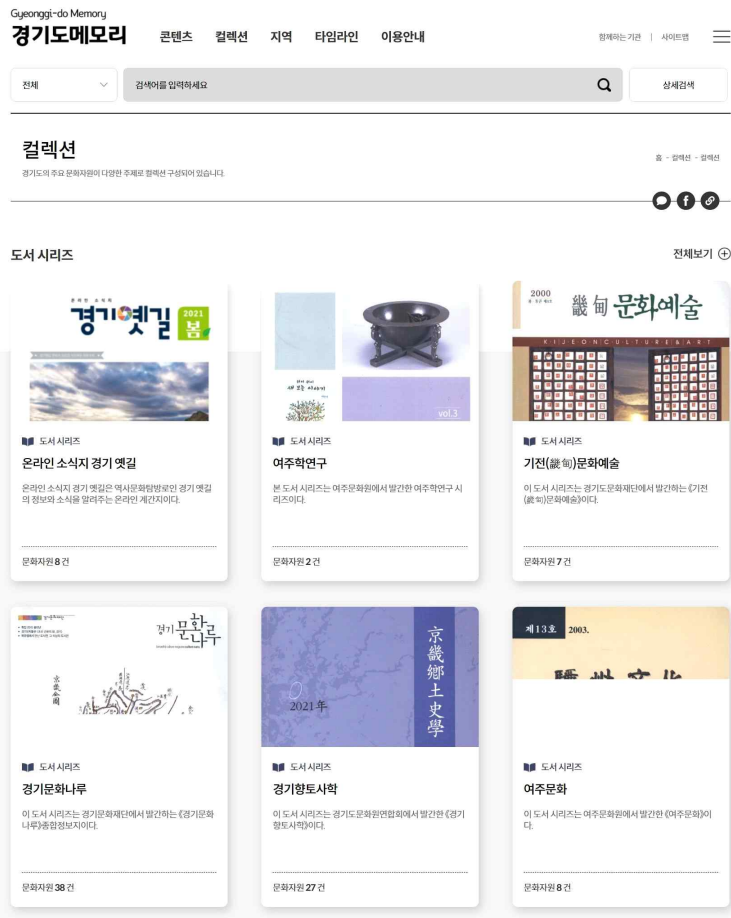


그림 12 경기도메모리 <도서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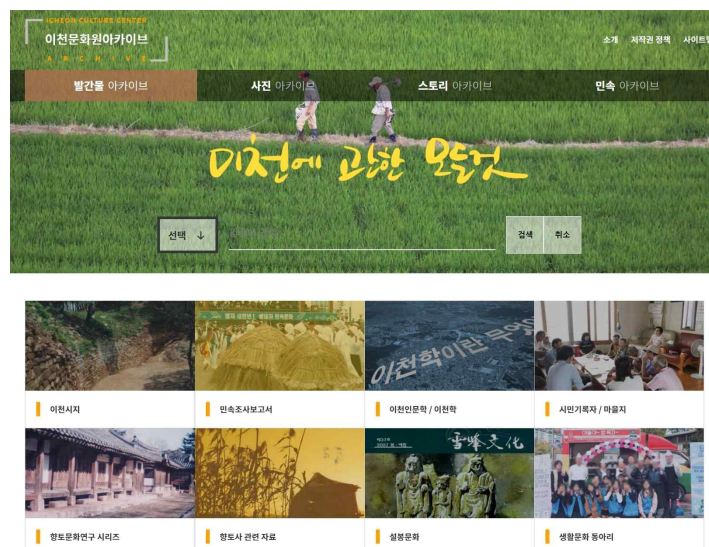


그림 13 이천문화원 아카이브 <발간물 아카이브>

② 기록물 활용을 통한 콘텐츠 서비스

- 기록물을 분류체계에 따라 보여주는 제주학아카이브를 제외하고 나머지

는 이용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 기획콘텐츠, 교육 자료 등을 제작해 게시하고 있음.

- 해외 사례의 경우도 주제를 구성하여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메인 화면을 구성했음.
- 기록물을 최대한 수집하여 게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자 또는 일반 시민들이 기록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적합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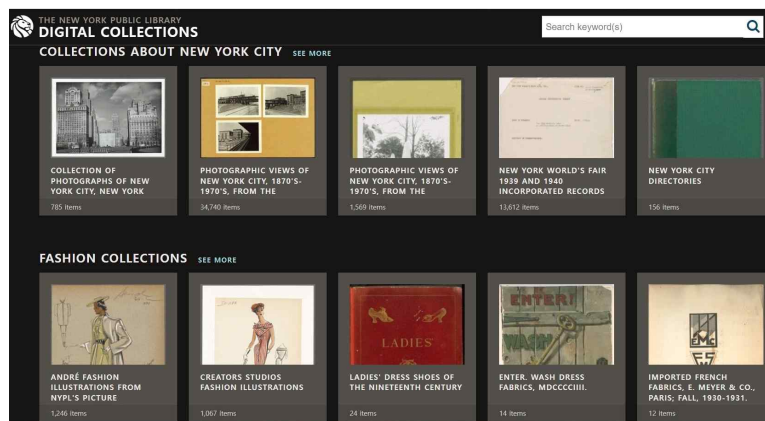


그림 14 뉴욕 공공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의 주제별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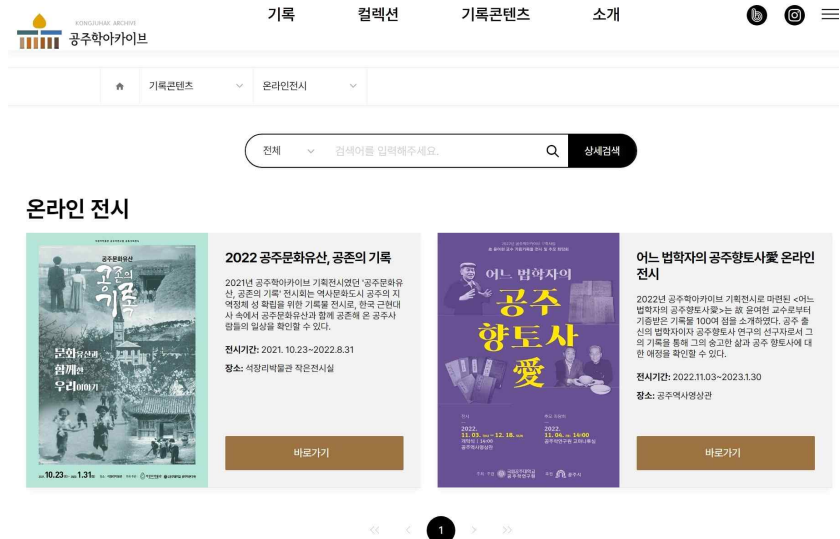


그림 15 광주학아카이브 온라인 전시

③ 유관기관과의 협력

- 대부분의 아카이브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음.
- 특히 캘리스피어의 경우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한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참여 기관의 명단을 웹사이트에 특별히 명시하고 있음. 경기도메모리의

경우도 수집 기관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놓았음.

- 유관기관의 기증을 독려하고, 해당 기관 사이트의 유입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협력의 의미를 극대화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아카이브가 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The screenshot shows the Calisphere website header with the logo and a search bar. Below the header,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Contributing Institutions, Collections, Exhibitions, and About.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Institutions Contributing to Calisphere' and lists various contributing institutions categorized by 'UC Partners' and 'Statewide Partners'. The 'UC Partners' list includes UC Berkeley, UC Irvine, UC Riverside, UC San Diego, UC San Francisco, UC Santa Barbara, UC Santa Cruz, and UC Merced. The 'Statewide Partners' list includes the Clare Trevor School of the Arts Media Center, Fowler Museum of Cultural History, and the Grunwald Center for the Graphic Arts.

그림 16 캘리스피어 협력 기관 목록

The screenshot shows the Gyeonggi-do Memory website. It features a header with the site name and navigation links. Below the header, there's a search bar and a list of partner institutions. The list is organized into three columns: '전체' (All), '협력기관' (Partner Institutions), and '연계기관' (Linked Institutions). The '협력기관' column lists various cultur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Gyeonggi-do Museum, Gyeonggi-do Library, and Gyeonggi-do Cultural Center.

그림 17 경기도메모리 협력기관 목록

④ 기록물의 정보를 담아내어 검색도구로 활용

- 기록물의 서지정보 또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활용해 기록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뉴욕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 경우는 분류체계를 한정해놓지 않고,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최대한 입력하여 기록물 검색에 활용하고 있음. 캘리스피어도 마찬가지로 분류기준을 복잡하게 두지 않고 유형과 시대만으로 구분하여 간소화했음. 대신 패싯기능을 사용하여 필요한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놓았음.
- 기록물 검색이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대중적인 방식인 만큼 1차 키워드로 검색된 기록 중 필요한 기록을 찾기 위한 결과 내 재검색이나 패싯 기능을 수집된 기록물의 성격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상세 정보

1972년 공주문화원 TV 시청 토론회 안내 공문

1972.10.10, 미국공보원에서 마련한 미소-미중 정상 회담 후 동아시아의 안보라는 제목의 TV 시청 토론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이다.

등록번호	500010211
생산자/생산기관	공주문화원
생산일자	1972.10.08
기증자/수집처	공주문화원
시대분류	현대
출처분류	기관
공개구분	공개
공개비공개사유	공공이용가능대상
원본여부	원본
열람조건	조건없음
물리적 특성	특이사항 없음
쪽수	1
크기	18.6X25

그림 18 공주학아카이브 기록물 상세정보

경기향토사학 제26집

2021년, 京畿郷土史學 第26輯

본서는 경기도 각 지역 향토사학자에 의해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도 정체성의 근간이 될 자료들로 구성하고자 한 논문집으로 제26집은 자유주제라는 중요한 역사를 연구 발굴하여 제출된 9개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주요 정보	상세 정보	디지털 파일 정보	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번호 : 170046813 · 제공자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생산자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생산일자 : 2021-12-31 · 발행자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일련번호 : 경기향토사학 · 경기도재외리주제 : 역사, 정치행정, 법제 · 지역 : 경기도 · 장소 : 경기도 · 시간적 범위 : 조선15세기, 조선16세기, 조선17세기, 조선18세기, 조선19세기 · 유형 : 도시인행물(인행본 / 텍스트) · 크기 : 251쪽 · 대체 : PDF · 태그 : 이성계, 내시제도, 역사신앙, 세종대왕 			
원본보기 오류 및 장애 신고			

그림 19 경기도메모리 기록물 상세 정보

2) 부산 지역

- 공공기관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자료생산: 부산시사편찬실은 부산의 역사, 박물관은 소장유물 혹은 전시도록, 발굴보고서 등,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는 부산학 관련 전반적인 관심 주제들에 대한 연구
- 융복합적인 방법론을 활용한 생활문화사 연구: 융복합적인 방법론을 활용한 생활문화사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음. 부산시사편찬실의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부산역사 대중서 등과 부산근현대박물관 공간별 사례조사 등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분과학문별 경계를 허물고 부산의 특정 공간과 시민들의 생활문화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연구방법론 또한 기존의 문헌 연구 중심에서 다양한 시각 자료나 구술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음.

IV. 부산학아카이브 운영 분석

1. 부산학아카이브 운영

1) 부산학아카이브 구축

- 2021년 11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2021년 9~10월 아카이브 자료수집
- 2021년 12월 아카이브 온라인 서비스 시작

2) 수집 방법

- 협력 수집과 연계 수집으로 아카이브 구축
- 2022년 『시정일지』외 700여 건은 자체 수집으로 아카이브 구축

3) 자료수집 한계

- 자료수집을 위한 섭외 과정에서 자료제공이 불가한 기관이 다수 존재하였음.
- 자료제공에 필요한 사전 조사가 부족한 점, 자료생산기관의 서비스 업무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점 존재
- 자료제공에서 중요한 문제는 저작권 문제임.
- 담당 인력의 부족, 현재 아카이브 담당 인력은 1명으로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한계가 많음.

2. 자료구축 현황

생산기관	주요 내용	비고
부산광역시	통계연보	58건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역사 관련 자료(문헌자료, 구술자료), 연구서, 교양서, 논문집	503건
부산박물관	전시도록, 발굴보고서, 근대엽서(사진)	146건
근현대역사관	소장유물 도록, 연구총서(생활사)	12건
부산학연구센터/	연구총서(생활사)	67건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	소식지, 간행물, 논문집	14건
신라대 부산학센터	연구총서, 부산연구(논문집)	33건
부산본부세관	세관보(신문)	3건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발표자료집, 회고전 카탈로그, 특별전 카탈로그	119건
부산상공회의소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42건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조사보고서	23건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조사보고서(생활사) 학술대회자료집	13건
개인 (부산시립중앙도서관)	사진	378건
기타(부산시립도서관)	일제강점기 출판자료	111건
영도구	보고서, 동영상	3건
부산진구	도서(생활사)	4건
동래구	사진, 고문헌	80건
남구	사진	188건
금정구	사진	327건

* 2023년 5월 9일 현재 현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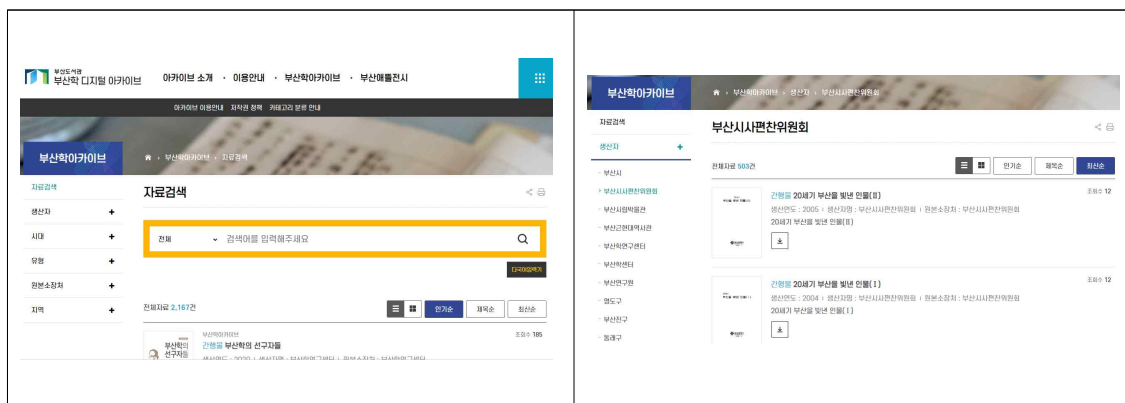


그림 20 부산학아카이브 메인 화면(좌)과 자료서비스 내용(우)

① 성과

- 부산시 및 부산시 소재 공공기관, 대학에서 생산된 생활, 역사, 문화,

행정자료를 서비스

- 원문 파일(pdf 파일, 혹은 그림파일), 기술정보(제목, 키워드), 생산자, 시대, 유형, 원본 소장처, 지역 정보 제공
- 간행물(1,140건)이 대부분이며, 고문헌(45건), 사진(958건), 영상(1건)이며, 지도, 구술, 문서, 논문은 0건임.
- 자료의 분류는 생산자, 시대, 유형, 원본 소장처, 지역 등으로 분류하고, 검색기능을 활용해 각 분류 간의 중복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학문 분류에 따른 분류는 하지 않고 있음.

② 구축자료의 특징

-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비매품 자료는 원문을 구축하였음. 저작권 문제나 소장기관의 요청에 따라 직접 서비스 대신 생산기관으로 안내하거나 링크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임.
- 부산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이나 개인, 대학 기관이나 도서관의 부산학 관련 자료를 기증 혹은 연계 서비스
- 부산도서관 자체 생산자료는 아직 없는 상태임.

③ 자료수집 방법

- 부산도서관 자체 자료생산보다 부산학 관련 공공기관 생산자료 혹은 소장자료를 수집, 서비스하고 있음.
- 수집 방식은 생산기관의 아카이브와 연계하는 방식, 생산기관의 pdf 자료를 수집하여 직접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저작권 등 직접 공개가 어려운 자료는 생산기관을 안내하거나 링크로 연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 자료의 수집은 부산학아카이브 운영자가 생산기관 담당자와 직접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음. 자료수집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④ 한계

- 서비스 자료는 대부분 공공기관의 간행물류이며, 시청각, 사진, 박물관, 문서 등 비도서 자료서비스가 부족하여 균형감을 잃고 있음.
- 공공기관 가운데 기초지자체의 경우 5곳의 자료만 수집되고, 나머지는 수집자료가 없음. 지역 문화원 등 준공공기관과 대학 및 민간 연구기관, 개인이 누락되어 있음.
- 수집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 민간 단체, 개인 등으로 다양하며, 자료의

유형 역시 간행물, 고문헌, 지도, 사진, 영상, 구술, 문서, 논문 등 다양. 부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서 부산학아카이브가 이상과 같은 방대한 유형의 자료수집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서비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생산자 및 제공자의 자료를 등록·서비스하고 있는 실정임.
- 수집자료의 정리와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다양한 분과학문을 소화 가능한 인력)이 부족함.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료수집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자료수집 대상 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각 기관별 자료생산 및 수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부산학아카이브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공유가 필요함.

3. 서비스 분석

1) 분류체계에 의한 서비스

① 현황

- 분류체계는 도서관 분류체계(KDC), 학문 분과별 분류형식을 취하지 않고, 생산자, 시대, 유형, 원본 소장처, 지역별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였음.
- 생산자: 자료를 제공한 부산 소재 공공기관 혹은 부산 관련 자료생산 공공기관 중심. 생산자별 접근은 자료 제공기관을 드러낸다는 점, 생산기관별 자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장기적으로 생산자의 자료생산이 증가하면 생산자 기준의 필요 자료 검색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음.
- 시대: 근대 이전, 근대, 현대의 시대분류는 자료 접근 방법으로 비효율적임. 특히 자료가 많은 현대의 경우 더 복잡하며, 최근 간행되는 자료의 경우 시대를 넘나들기 때문에 하나의 시대를 지정하는 것은 등록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유형: 간행물, 고문헌, 지도, 사진, 영상, 구술, 문서, 논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간행물과 논문의 양이 방대하여, 유형별 검색에 의한 자료 접근은 비효율적일 것으로 예상
- 원본 소장처: 생산자와 동일한 문제 예상
- 지역: 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오늘날 생산물은 특정 지역이나 공간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지역별 경계를 넘나드는 자료들이 많

아 자료 접근이 비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됨.

② 한계

- 현재 부산학아카이브 분류체계에 의한 자료 접근 방식은 비효율적임. 최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접근은 다중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함(예: 부산연구원 아카이브, 경기도메모리 등).
- 다중 검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류체계에 의한 검색 중심의 부산학아카이브 시스템은 개선을 필요로 함.

<p>생산지</p>	<p>시대</p>
<p>유형</p>	<p>지역</p>

그림 21 부산학아카이브 분류체계

2) 자료 검색을 통한 서비스

① 현황

- 검색은 제목, 키워드, 부산애플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으며, 결과 내 재검색과 상호교차 검색이 가능함. 검색된 결과물은 인기순, 제목 순, 최신순으로 배치 가능
- AND OR NOT의 검색조건을 사용해 최대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 범위를 축소할 수 있음.
- 서비스는 생산자, 시대, 유형, 원본 소장처,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음.

② 한계

- 서비스 자료의 대부분인 간행물류는 상세 정보를 게재하고 있지 않아 자료 검색에 한계가 있음.
- 이용자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기능 강화와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입력이 필요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음. (V장 6절 서비스 전략(분류체계 및 검색기능)과 7절 단계별 추진전략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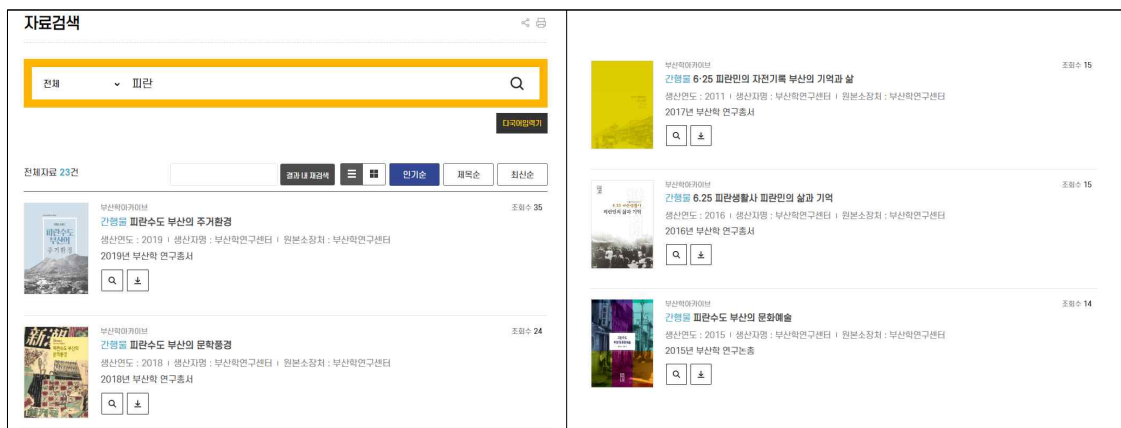


그림 22 부산학아카이브 자료 검색(좌) 및 열람방식(우)

3) 자료 열람방식

- 자료 열람은 자료 생산자의 공개방침에 따라 pdf 파일 원문다운, e-Book 제공, 원문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원본 소장처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V. 지역학 아카이브 전문가 자문과 시사점

1. 타지역

1) 경기도메모리(면담: 2022.05.04. 오후 2:00~3:00)

① 경기도메모리 구축 과정

- 2001년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개관 당시부터 지역 자원 수집에 관한 의견이 나왔음.
- 2014년 도서관의 자료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하여 아카이브 관리에 불편함이 있었음. 이에 2016년 《경기도메모리 종합발전 계획》과 2017년 《경기도메모리 경기정명천년 기록콘텐츠 개발》 연구를 기반으로 아카이브 시스템의 도입 추진. 이듬해 오픈소스 아카이브 시스템 오메카(OMEKA)를 도입하면서 지역별, 타임라인별 콘텐츠, 온라인 전시콘텐츠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개별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내부적으로도 자원의 분류와 기술 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카이브의 기틀을 다짐.
- 2020년에 신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경기도메모리 아카이브 정보화전략 계획(ISP)》을 수립하고, 2021~22년에 걸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

② 자료수집 방식

- ‘데이터베이스’, ‘메뉴스크립트(자원)’, ‘지식베이스’, ‘Born digital 및 웹 자원’ 등을 망라하여 입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는 ‘자원’ 수집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시범적으로 ‘지식베이스’ 수집을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
-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과 연결이 부족하거나 시급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다면 수집함. 또한 특정 주제, 특정 지역의 자원들을 수집함.
- 기록물의 성격과 수집 방식과 과정은 세 가지로 나뉨짐.
 - ✓ 자체 수집: 콘텐츠 사업 제작 사업이나 수집 전략에 근거해서 경기도 메모리가 단독으로 수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델. 현재는 20여 년간 꾸준히 진행한 원문 DB 구축이 있음.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및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자원 수집. 디지털화가 필요한 자원은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메타데이터 및 목차 정보를 입력한 후 시스템에 등록하여 서비스

함. 이 외에도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 시 산출된 자원들을 수집하거나,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기증하는 경우가 있음.

- ✓ 협력 수집: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파일을 주는 경우가 많음. 생산이나 수집 주체들과 협력해서 공동으로 수집 프로젝트를 진행함. 생산이나 수집 주체들이 자원을 생산하거나 수집했지만, 시스템이 부족해서 활용되지 못하는 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화와 조직화를 지원
- ✓ 연계 수집: 타 생산 및 수집 주체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들이 있음.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아카이브 페이지나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기관들과 연계 협력.

③ 타 기관과의 협력 관계

- 경기도의 지역 아카이브는 문화기관들과 직접 접촉함.
- 공공기관 자체도 아카이브의 상황을 파악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제안하며, 협력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고자 함.

④ 분류체계

- 연계 수집을 했을 때 해당 기관의 분류체계를 존중함.
-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KDC를 기반으로 35개의 주제를 도출하여 주제 분류를 단순화했음.
- 하나의 기록물에 여러 개의 분류 값을 입력할 수 있음.
- 분류에 대한 규정은 없음. 과거에 주제, 기능, 형태, 시대라는 4개 분류 요소로만 분류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이 분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김. (예: 패킷으로 관리되는 모든 요소, 메타 요소, 사전 등)
- 이용자가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에서 다양한 형식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고자 함

⑤ 기록물의 이용

- 이용자 계층에 따라서 아카이브에 접근하는 목적도 틀리고 사용 방법이 다르므로 검색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함. ‘전문 연구자’와 ‘길 잃은 이용자’ 두 유형으로 나누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방향이 있음.
- ✓ 전문 이용자가 검색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검색 엔진의 엄밀성을 높임
- ✓ 길 잃은 이용자가 아카이브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을 최적화함

- 기록물이 포털사이트에 검색이 잘되도록 방법을 개선하고 있음.
- 도서관이 운영하는 아카이브의 특성상 보존보다 활용에 방점을 두고 홍보하려고 함.
- 교육 콘텐츠가 가장 활용도가 높음. 현재는 초등학생 대상 교육 콘텐츠만 제작해 놓은 상태임.

⑥ 운영 인력

- 경기도의 도서관정책과 산하 도서관정책팀 중 기록연구사인 1인이 담당하고 있음.

2) 제주학아카이브(면담: 2022.05.15. 오후 2:50~4:00)

① 제주학아카이브 구축 과정

- 1969년 탐라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학 연구 필요성에 대한 논의 시작
- 2011년 제주연구원(당시,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제주학연구센터 설립하면서 아카이브 구축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4년부터 도의 지원으로 아카이브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② 자료수집 방식

-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제주도)와 방송국, 관련 기관 등에서 생산한 자료를 수집했고, 사진작가들이 대량으로 사진을 기증하기도 했음.
- 2020년부터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 수집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2020년 <제주학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 수집> 사업을 통해 5천여 건의 사진과 수백 건의 동영상이 수집됨.
- 시민아키비스트 양성 과정은 시민들이 교육 후 자기 마을 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학아카이브에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3년째 진행 중임.
- 현재는 특정 자료가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 해당 기관에 찾아가 업무 협약을 통해 자료를 받아옴.
- 기록물 원본은 마을이나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개방권, 배포권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기탁받고 있음.

③ 타 기관과의 협력 관계

- 제주의 '권당문화'로 사회자본으로서의 네트워크가 강해 초기에 대부분의 기관이 적극 도움을 주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영상제작물의 경우 기증기관과 제주학아카이브의 중복 게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
- 3년 전부터 네트워크 포럼을 운영하고 있음. 제주 안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문화원, 문화예술재단, 영상문화진흥원, 도시재생센터, 4.3 연구재단, 연구소, 탐라문화연구소, 교육청, 박물관, 전시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아카이브 담당자들이 매년 포럼을 진행하고 있음. 향후 협의체 구성과 제주학아카이브 포털사이트 구축을 고민하고 있음.
- 이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④ 분류체계

- 초기에 십진 분류체계를 적용했고,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기본 체계에서 제주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세부 분류체계들을 개발해 보완하려고 하고 있음. (예: 민속 신앙, 마을의 자치 관행, 해양, 생태, 환경, 지질 순수 과학, 평화 등)
-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와 하나의 분류체계만 적용되는 상황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음.
- 시민들이 유용한 자료로 접근하기에 유리한 주제의 분류체계를 만들려고 함.

⑤ 기록물의 이용

- 매년 약 4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자료를 찾고 다운받고 있고, 매년 30여 건의 자료에 대한 사용 허가 또는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자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제주로 들어온 이주민, 학생 등 다양한 이용자가 있음.
- 사진작가들이 기탁한 자료는 공유 4유형으로 누구든 쓸 수 있으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체계임.
- 이용자 유입을 위한 특별한 홍보는 없고, SNS에 아카이브 관련 소식을 올리고 있음.

⑥ 운영 인력

- 공식적으로 연구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후임 연구원이 같이 활동하고 있어 현재는 2명이 맡고 있는 상황. 그 외 단기 계약직으로 연구보조원

1명 채용하고 있음.

- 기록학이나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없어서 전문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감수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려고 하고 있음. 지역의 기록학, 인문학, 역사학, 민속학 등 연구자로 구성해서 제주학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새로운 자료 검수 등 역할로 운영을 기획 중임.

3) 시사점

①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료수집

- 면담을 진행한 두 지역학 아카이브는 공통적으로 타 기관과의 협력을 기본 전제로 두고 있음.
- 경기도메모리의 경우는 기록물 수집을 3가지로 구분했는데, 그중 2가지는 타 기관과의 협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방식임.
- 특히 대상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방식의 협력을 하거나 링크를 통해 해당 기관 사이트로 유입되게 하는 등 협력을 통한 수집 과정에서 두 기관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 두 아카이브 모두 타 기관에서 생산한 도서관행물 형태의 기록물을 주요 수집 대상으로 했음. 제주학아카이브는 연구 자료로서 사진과 영상, 구술기록물을 수집하였는데,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록물의 유형이 확장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음.
- 제주학아카이브의 경우 지역 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매년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상호 협의를 논의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상황에 맞는 협력 방식에 대한 세부 모델을 마련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록이 수집되어야 함.

☞ 연구, 기록화, 교육 등의 결과물로 제작된 도서관행물 유형의 기록물이 기관별로 다수 생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집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함.

② 이용자의 검색 용이성을 고려한 분류체계

- 두 아카이브 모두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KDC(십진분류법)를 사용하여 기록물의 기본 분류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중 분류를 적용하여 기록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항목을 복수로 입력할 수 있게 했음.

- 경기도메모리의 경우는 이용자가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메타데이터 요소와 패킷의 요소들이 모두 분류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음.

☞ 특정 분류체계를 두기보다는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내의 다양한 요소들을 패킷으로 구현하고, 관련 키워드를 다수 입력하여 검색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유용함.

③ 도서관이 운영하는 아카이브의 특성 고려

- 전국의 지역학 아카이브 중 경기도메모리가 유일하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아카이브임.
- 경기도메모리는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존보다는 활용에 방점을 두고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음.
- 두 기관 모두 이용자가 기록물을 검색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기록물을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 부산도서관이 운영하는 아카이브 또한 아카이브 서비스 이용과 활용의 거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최대한 다양한 출처의 기록물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④ 운영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

- 두 아카이브 모두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제주학아카이브의 경우 이러한 상황의 대안으로 기록물 감수위원회와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해 운영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이면서도 기록물 수집과 관리, 지역 내 아카이브 논의의 확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임.
- ☞ 부산학아카이브 또한 관계 기관의 아카이브 담당자 네트워크를 통해 기록물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인문학, 향토사, 기록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록물 평가와 수집처 발굴 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부산 지역

1) 부산근현대역사관(서면 인터뷰, 2023.06.08.)

① 수집자료의 범위

- 현재 부산학아카이브에서 수집·서비스 자료는 부산학 관련 발간 도서뿐만

아니라 고문서,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산근현대 역사관 수집자료와 중복 우려

- 부산학 관련 도서를 수집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부산도서관의 역할에 어울린다고 생각됨.

② 부산학아카이브의 역할

- 부산학아카이브는 부산학 관련 도서의 수집, 제공에 집중하고, 부산근현대역사관은 실물 자료 위주의 수집을 담당하는 것이 두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산학아카이브 활성화에 기여.

③ 부산학 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의 필요성

- 부산학 관련 연구기관의 역할 분담과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부산도서관은 부산 관련 출판 도서, 부산시립박물관과 부산근현대역사관은 부산 관련 사진·유물자료,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은 부산 관련 미술작품을 수집 서비스한다면 중복사업을 예방하고, 행정 및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부산학의 범주가 더 넓고 다채로워질 것으로 생각됨.
- 모든 연구기관이 각각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기보다 부산학 공통의 아카이브를 통해 각 기관의 특성에 어울리는 자료를 서비스하는 방법이 효율적임.

2) 부산시사편찬위원회(서면 인터뷰, 2023.06.14.)

① 수집자료의 범위

- 아카이빙 대상 범위는 부산을 주제로 다룬 단행본, 국내외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연구 성과물
- 부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 노래 등 문화예술 관련 자료
- 구술자료 수집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목록만 서비스하고, 내용 열람은 생산기관에서 진행

② 부산학아카이브의 역할

-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술자원
- 부산학 관련 교육용 영상자료의 제작 및 업로드 필요

③ 부산학 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의 필요성

- 부산학 연구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연구기관들의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필요
- 부산학 관련 학술정보 및 연구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 필요

3) 부산연구원(서면 인터뷰, 2023.06.13.)

① 수집자료의 범위

- 부산학연구센터와 부산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와 정보는 부산학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협조
- 부산광역시 내 구·군의 문화원 기록물과 자료, 발행 도서 등도 서비스 필요
- 부산문화재단의 부산 관련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협력하여 자료제공 협조 필요

② 부산학아카이브의 역할

- 부산 관련 기록물, 연구물,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검색, 활용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원문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③ 부산학 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의 필요성

- 부산학 관련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자 간 교류, 정보교류, 연구자와 시민 간의 가교역할, 포럼, 시민강좌, 발간물 교환, 타지역 정보 교류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부산학 관련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는 신진연구자들의 발굴, 시민연구자 양성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네트워크는 대학의 연구기관, 부산의 박물관, 문화원, 자료관, 미술관 등이 함께 참가하여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교류 필요.

4) 용역 중간 보고회 자문 결과(2023.05.24.)

① 부산학아카이브 운영 주체로서 부산도서관의 역할

- 부산도서관 고유의 특성이 있으므로 모든 기록을 다 포함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는 어려움.
- 새로운 자료를 생산하는 것 보다 다른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들과 한 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자료들을 제대로 모으는

것이 중요함.

- 도서관이 아카이브 기능과 전시 기능까지 포함하면서 대시민 기능을 확장해가는 방향이므로 역사관이나 박물관이 아닌 도서관이 자료들을 소개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② 부산학아카이브 운영체계와 방법

- 부산도서관의 예산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아카이브 운영이 필요함.
-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적인 업데이트가 중요함.

③ 부산학 명칭 문제

- ‘부산학아카이브’라는 명칭이 지니는 무게감 때문에 시민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 부산학이라는 용어가 시민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④ 수집자료의 범위 및 대상

- 부산도서관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생활문화사 중심의 자료구축과 컬렉션 유형의 구축 병행 필요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나 공동체에서도 생산되는 자료들이 누락되지 않고 수집될 필요가 있음.

5) 시사점

① 수집자료의 범위

- 각 기관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수집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산학아카이브는 부산도서관이라는 도서관적인 기능에 알맞은 자료수집이 필요함.
- 부산학아카이브는 수집자료의 내용은 생활문화사를 중심으로 하고, 유형은 부산도서관의 성격에 알맞은 도서에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수집 대상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 공동체, 개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료수집 유형과 관련하여 부산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 인물, 사건 등에 대하여 부산도서관이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컬렉션’ 유형의 수집 및 서비스가 필요

② 부산학아카이브의 역할

- 부산학 관련 도서의 자료 검색, 서비스 역할을 필요로 함.
- 서비스 방식은 원문제공이 필요하며, 저작권 등 생산기관의 사정을 고려한 공개 필요
- 부산학 관련 교육용 영상자료의 제작 및 공유 필요

③ 부산학 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의 필요성

- 부산학 관련 연구기관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필요
- 네트워크를 통해 각 기관의 정보교류를 통해 중복사업 및 행정·예산 낭비 방지
-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자 교류, 정보교류, 연구자와 시민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부산학 연구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유형의 행사를 통해 부산학 관련 자료의 축적과 확산에 기여

VI. 수집대상 기관의 자료와 특징

1. 부산학 관련 기관별 자료 현황

1) 박물관, 미술관

발행처	제목	발행연도	유형	원문제공 형태 및 여부
부산민속예술 보존협회	동래와 함께하는 부산의 민속예술 (만화 E-BOOK)	2019	도서	e-book
국립일제강제 동원역사관	강제동원 역사 길잡이	2020	교육자료	pdf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상설전시도록	2016 2021	도록	e-book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증유물도록	2022	도록	e-book
	부산 지역 일본군 위안부 운동 역사 자료 집	2022	자료집	e-book
	남양의 시탕수수밭 아이들	2021	도서	e-book
범어사성보 박 물관	범어사 3.1운동과 명정학교	2019	도록	×
	범어사의 불화	2020	도록	×
	천년고찰 범어사	2015	도록	×
오륜대 한국 순 교자박물관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기증품	2022	도록	×
	내면의 목소리를 신앙의 목소리로	2021	도록	×
	대한제국기 의궤	2021	도록	×
	기해 1839	2019	도록	×
부산대학교 박 물관	부산 오륜대 고분군		발굴보고서	×
	부산 화명동 고분군		발굴보고서	×
	부산 울리 암음유적		발굴보고서	×
	부산 노포동 고분군		발굴보고서	×
	동래 복천동 고분군1-7		발굴보고서	×
	부산 당감동 고분군		발굴보고서	×
	해운대 좌동유적		발굴보고서	×
신라대학교 박 물관	부산 연산동 4호분	1989	발굴보고서	×
	가덕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2	발굴보고서	×
	부산 덕문고등학교 강당신축부지 시 굴조사 보고서	2004	발굴보고서	×
	기장-내동 야외노지	2004	발굴보고서	×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2	발굴보고서	×
부경대학교 박 물관	부산 송정동 유적	2006	발굴보고서	×
	북정패총	1993	발굴보고서	×
	가야인, 바다에 살다	2021	도록	×
동아대학교 박 물관	歡待(환대)-부산과 맺은 인연	2022	도록	×(판매)

부산시립미술관	2015-2017 부산시립미술관연보	2017	연보	×
	부산의 작가작가 14,15 시간의 산책자들:임응식, 정인성	2017	도록	×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확장하는 시선:지역미술의 현대미술 수용	2017	자료집	×
	토벽동인 1953-1954:부산미술, 그 정체성의 출발	2017	도록	×
	아카이브 프로젝트:피란수도 부산미술	2018	자료집	×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전:Ⅱ. 피란수도 부산_절망 속에 핀 꽃	2018	도록	×
	김종식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김종식	2018	도록	×
	2019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지원사업:2019 부산미술 다시보기	2019	학술지	×
	1960-70년대 부산미술:끝이 없는 시작	2020	도록	×
	2021부산시립미술관×문화예술교육사 결과자료집	2020	교육용 자료집	×
	2020부산시립미술관 학술논문집:1960-80년대 부산미술	2021	간행물	×

- 부산 지역 전시관에서도 부산학 관련 자료 간행이 진행되었음. 특히 전시도록과 발굴보고서가 많았으며, 교육용 자료집, 학술지인 정기간행물이 발간되었음.
- 전시관은 독자적인 홈페이지에 출판물 표지 이미지를 게재하고 있으며, 생산자료의 최소 정보만 제공할 뿐 목차 혹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 자료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과 부산민속예술보존회 생산자료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2) 전문 연구기관

발행처	제목	발행연도	유형	원문제공 형태 및 여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 연구소	부산미술의 조형	2012	도서	×
	부산의 역사와 문화	1988	도서	×
	부산지방의 세시풍속	1999	도서	×
	離鄉과 경계의 땅 부산의 아미동, 아	2011	도서	×

	미동 사람들			
	부산의 장소를 걷다	2016	도서	×
	부산 시공간의 형성과 다층성	2013	도서	×
	마을연구와 로컬리티	2017	도서	×
	장소경험과 로컬정체성	2013	도서	×
	동아시아 개항장 도시의 로컬리티	2013	도서	×
	부산 지역 현실과 지역운동	1999	도서	×
	부산의 민속문화	2003	도서	×
	전환기 부산 사회와 부산학	2005	도서	×
	대전일기1,2	2017	도서	×
동 아 대 학 교 석당학술원	부산,울산,경남지역 항일운동과 기억의 현장	2011	도서	×
	일제시기 일본인의 부산일보 경영	2013	도서	×
	부산의 도시형성과 일본인들	2008	도서	×
	일제강점하 부산의 지역개발과 도시 문화	2009	도서	×
	지역과 문화유산	2010	도서	×
한국해양대 학 교 국제해양 문제연구소	조선시대 해항도시 부산의 모습-군항 과 해항	2018	도서	×
	근대 부산의 일본인 사회와 문화변용	2014	도서	×
	문화교섭으로 본 임진왜란	2014	도서	×
	부산대관	2010	도서	×
	해항도시 부산의 재발견	2014	도서	×
	부산의 해양문화유산을 찾아서	2009	도서	×
부 경 대 학 교 해양인문학연 구소	동북아해역과 귀환	2021	도서	×
(사)부경역사연구소	시민을 위한 가야사	1996	도서	×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2003	도서	×
	부산인물사	2004	도서	×
	지역과 역사	1996 -	간행물	×

- 전문 연구기관은 대부분 대학 부설연구소이며, 민간 단체로는 (사)부경역사연구소가 유일함.
- 대부분 연구총서로서 도서형이 많으며, 저작권이 있어 직접적인 공개는 제한되고 있음.
- 이들 자료의 서비스를 위해서 부산학아카이브는 상세자료의 정보를 DB화 하고, 부산도서관이 도서 구입 혹은 기증받아 부산애플을 통해 서비스할 수 있음.

3) 공공기관

발행처	제목	발행연도	유형	원문제공 형태 및 여부
강서구	1904, 흐르는 섬 가덕도	2018	도서	×
동구	부산 동구에서 삶을 오롯이 이바구하다	2016	도서	×
부산진구	당감: 당감행복한마을 주민 인터뷰집	2018	도서	pdf
	이야기가 열리는 안뜰, 안창: 안창마을 기록화	2022	도서	pdf
북구	도시를 기록하는 마음	2022	도서	pdf
사하구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사하 이야기	2011	도서	pdf
수영구	[보고서]수영동 생활문화 조사보고서	2015	보고서	×
연제구	사소한 기억 어쩌면 모두의 이야기: 거제4동 마을기록화 프로젝트	2021	도서	pdf
	지킴이 당산나무: 거제2동 마을기록화 프로젝트	2022	도서	pdf
	거제다반사: 거제3동 마을기록화 프로젝트	2022	도서	pdf
	밤골, 기억에 답하다: 연산3동 기록화 프로젝트	2022	도서	pdf
	배산 아래 삽니다: 연산8동 기록화 프로젝트	2022	도서	pdf
영도구	흔적, 삶, 변화_이송도마을에서 흰여울문화마을로	2017	도서	pdf
중구	해뜨는 빛우물 마을 동광동 마을기록: 이야기와 소리로 기록 찾기	2022	도서	pdf
구포초등학교	구포사람들 이야기: 구포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지	2008	도서	×
동래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축구부 100년사	2013	도서	×

- 최근 10여 년 진행된 도시재생사업 또는 문화도시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마을과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담은 도서간행물과 보고서들이 많이 발간되었음.
- 기초자치단체 내의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문화도시 관련 자료는 문화도시사업을 진행한 기관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음.
- 전문가들이 연구와 제작을 한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료가 생산되기도 함.
- 연구보고서의 경우는 수집에 대한 해당 연구기관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함.
- 자료공개는 대부분 PDF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제공하지 않음.

4) 문화원

발행처	제목	발행연 도	유형	원문제 공 공 및 여부
금정문화원	금정의 역사와 현장	2016	도서	pdf
	우리고장 탐방 자료집(금정산, 황산도)	2019	도서	pdf
	천년의 길 황산도	2021	도서	pdf
	금정 26 전통마을의 역사와 민속 문화를 만나다	2018	도서	pdf
	향토문화(동상지역편, 금성동편, 장전동편)	2010 ~2013	도서	pdf
기장문화원	[연속간행물]기장문화	2001~	간행물	pdf
	기장의 역사와 문화	1998	도서	pdf
낙동문화원	사진으로 만나는 북구 자연마을	2022	도서	pdf
	[향토문화지]낙동강 사람들	1986~	간행물	pdf
	낙동 향토문화연구	2020, 2021	도서	pdf
	화명동 향토지	2022	도서	pdf
	금곡동 향토지	2021	도서	pdf
	두 기생의 순절 이야기 이기대	2021	도서	pdf
부산진문화원	고무신에서 나이키까지: 부산진구 신발 이야기	2018	도서	pdf
사상문화원	사상 지역의 문중사당과 재실	2019	도서	pdf
	사상의 민요와 손복동	2018	도서	pdf
	사상구 삼락동의 지형변천 연구	2021	도서	pdf
영도문화원	마을을 기억하다 : 흰여울문화마을 주민대백과	2016	도서	pdf
	대평동공업사를 만나다	2019	도서	pdf
	영도 종리해녀촌 해녀 구술모음	2018	도서	pdf
	보물섬 영도 이야기 스토리텔링 100선	2015	도서	pdf
	대한도기 흔적찾기	2021	도서	pdf
한국문화원연합회/영도문화원	영도 사람들: 근대 영도의 산업을 일군 산증인들의 기록	2021	도서	pdf
해운대문화원	천년의 향기 해운대 이야기	2011	도서	pdf
	해운대 자연마을 성씨 이야기	2021	도서	pdf
	해운대 역사 구술채록 사업 시리즈(재송, 4포, 반여)	2020 ~2021	도서	pdf

- 문화원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기장문화원, 낙동문화원과 같이 향토사

연구소의 활동이 활발하여 도서관행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곳이 있음.

- 위 목록 이외의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학술세미나 자료집,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할 수 있음.
- 문화원에서 발간한 자료는 대부분 한국문화원연합회 차원의 원천콘텐츠 수집 사업으로 만든 지역문화에서 열람할 수 있어 이와 연계하여 자료 수집이 가능함. (<https://www.nculture.org/man/main.do>)

5) 시민단체

발행처	제목	발행연도	유형	원문제 공개 형태 및 여부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 구술자료집	2020, 2021	도서	pdf
	부마민주항쟁 학술총서 시리즈	2020 ~2022	도서	pdf
	부마민주항쟁 구술자료 상세목록집	2019	도서	pdf
	부산민주운동사 1,2	2021	도서	pdf
부산스토리텔링협회	신발 속에 스며든 20인의 채록집: 구술로 풀어낸 신발의 도시 부산 그 속에 숨은 이야기	2017	도서	×
	구석구석 연제 보물찾기	2017	도서	×

- 연구와 사료 수집을 위주로 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스토리텔링 관련 단체에서 발간한 도서관행물들이 있음.
- 목록 이외에도 다양한 단체에서 분야별 역사를 담은 백서, 학술자료집 등을 발간하고 있음.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pdf 파일로 공개하고 있으나, 부산스토리텔링협회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6) 문화예술기관

발행처	제목	발행연도	유형	원문제 공개 형태 및 여부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인 아카이빙 사업 보고서	2020~	보고서	pdf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2019	보고서	pdf
	사람을 품다, 이야기를 담다, 부산의 시장	2015	도서	pdf
	2021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	2021	보고서	pdf
	부산 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 연구	2020	보고서	pdf

	부산 오페라 축제 구상 연구	2022	도서	pdf
	조선통신사		간행물	pdf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서동 미로마을 이야기> 서동로149번길에서 서부로16번길까지	2018	도서	pdf
국립부산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총서(원로 예술인 구술자료, 근현대 부산국악사)	2011 ~2021	도서	×
플랜비 문화예 술협동조합	[보고서]영도 권역별 기초자원조사 보고서	2019	보고서	×
	초량산보	2021	도서	×

- 문화예술단체에서 기획한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생산되기도 함. 『초량산보』는 신초량아카이브 프로젝트로 생산된 도서간행물인데 온라인 아카이브와 연동하여 사진 자료 열람 등을 연계할 수 있음(<http://www.shinchoryang.com>).
- 문화예술 기관에서 생산한 부산의 원로 또는 작고 예술인 아카이빙 자료들이 있음.
- 부산문화재단 생산자료는 pdf로 공개하고 있음. 국립부산국악원은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공개했으나, 현재는 열람을 요청해야 볼 수 있음. PDF 파일을 소장하고 있음.
- 부산문화재단의 경우 전자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 목록 이외에 다양한 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어 연계하여 수집할 수 있음(<http://e-archive.bscf.or.kr>).

7) 공동체

발행처	제목	발행연 도	유형	원문제 공 형태 및 여부
수정마을복지회	수정마을 이야기	2020	도서	×
만덕마을기재단	만덕사람들 창간호, 2호	2017, 2020	간행물	×
봉산마을(도시 재생사업)	영도와 봉래동 봉산마을의 역사와 문화	2019	도서	pdf
부산복구공동 육아협동조합	대천마을이야기	2017	도서	×

- 마을공동체, 학교 등에서 발간했으나, 소량 제작하고, 해당 단체에서만 소장하여 공개되지 않음. 봉산마을만 제공하고 있음.
-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pdf 파일로 소장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공동체를 통해 수집하여 디지털화하는 것이 필요함.
- 공동체와 관련한 개인 자료를 발굴하여 전문가들이 해제한 자료도 있음.

2. 시사점

- 부산학 관련 단체에서 생산한 자료들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문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생활문화사의 성격을 지닌 도서류가 대체로 많음.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는 전시도록이나 보고서류의 생산도 많음. 전시도록은 생활문화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보고서는 전문성이 너무 강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예상됨.
- 생산자료는 생산기관에 따라 독자적인 홈페이지나 아카이브 시스템을 갖추고 서비스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정보 공개가 원활하지 못함. pdf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한 기관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생산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DB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문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생산한 자료 가운데 저작권이 있는 도서나 간행물은 부산학아카이브에서 곧바로 서비스가 불가능. 부산학아카이브에 검색정보를 DB화하고, 원본을 구입 혹은 기증받아 부산도서관 부산애플에 비치하여 서비스할 필요가 있음.

Ⅶ. 부산학아카이브 개선방향

1. 자료수집 대상과 아카이브 범위

1) 자료수집 대상

- 아카이브 대상은 부산학 관련 자료를 생산하는 전문 연구기관, 박물관, 전시관, 공공기관,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 공동체 등으로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기관과 자료의 내용 및 유형, 서비스 방식은 아래 표와 같음.
- 부산 이외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부산학 관련 자료를 생산한 국립민속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등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개인 등 또한 자료수집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외 소재 기관

분류	수집대상기관	자료의 내용 및 유형	원문제 공 형태 및 여부
박물관 미술관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 민속	e-book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강제동원 관련 전시도록 및 도서, 자료집	e-book
	범어사성보박물관	범어사 소장 유물 중심의 도록	×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한국 천주교 관련 도록	×
	부산대학교박물관	부산 지역 고분군 관련 발굴보고서	×
	신라대학교 박물관	부산 지역 매장문화 발굴보고서	×
	부경대학교 박물관	부산 지역 매장문화 발굴보고서, 도록	×
	동아대학교박물관	歡待(환대)-부산과 맺은 인연	×(판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미술사 관련 도록, 자료집, 학술지	×
전문연 구기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 화연구소	부산 관련 연구서 및 자료집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부산 일제강점기 연구서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 양문제연구소	부산 해항도시 관련 도서	×
	부경대학교 해양인문학 연구소	부산 해역관련 도서	×
	(사)부경역사연구소	부산의 역사와 간행물	×
공공기 관	강서구	가덕도 관련 도서	×
	동구	동구 생활사 도서	×
	부산진구	당감동 생활사 도서	pdf
	북구	북구 생활사 도서	pdf
	사하구	북구 역사 문화 도서	pdf
	수영구	수영구 생활문화 보고서	×

	연제구	연제구 마을 기록 도서	pdf
	영도구	흰여울마을 생활문화사 도서	pdf
	중구	중구 동광동 마을기록 도서	pdf
	구포초등학교	구포초등학교 역사	×
	동래고등학교	동래고 축구부 역사	×
문화원	금정문화원	금정구 역사 문화 도서	pdf
	기장문화원	기장의 역사와 문화 도서 및 간행물	pdf
	낙동문화원	북구 생활문화사 관련 도서, 간행물	pdf
	부산진문화원	부산진 생활문화사 도서	pdf
	사상문화원	사상지역 역사민속 도서	pdf
	영도문화원	영도 생활문화사 도서	pdf
	한국문화원연합회/영도문화원	영도 사람들: 근대 영도의 산업을 일군 산증인들의 기록	pdf
시민단체	해운대문화원	해운대 문화, 마을기록 도서	pdf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 관련 구술자료집	pdf
문화예술기관	부산스토리텔링협회	구술기록 도서	×
	부산문화재단	부산 문화예술 관련 도서, 보고서	pdf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금정구 서동 마을이야기 도서	pdf
	국립부산국악원	예술인 구술자료와 부산 국악사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영도, 초량 관련 생활문화자원 조사 보고서, 도서	×

참고: 수집대상기관은 부산학 관련 도서 혹은 자료집을 발간한 기관임.

2) 아카이브 범위

- 타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부산도서관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아카이브 범위 설정이 필요
- 아카이브의 범위는 부산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이 기록된 ‘생활문화사’ 관련 도서류와 도록류로 제한
-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생산하는 ‘보고서’ 류는 기관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데, 내용을 ‘생활문화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고고학적인 전문 내용은 시민들이 쉽게 내용 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전문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도서류는 대부분 저작권이 있어, 부산학아카이브에서 직접 공개하기 곤란함. 이 경우에는 부산도서관에 원본을 구입 혹은 기증받아 ‘부산애들’에 비치하여, 부산학아카이브와 연동시켜 서비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간행물의 경우 수록 논문 또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학술지 원본을 기증받아 비치하던가, 아니면 링크 혹은 생산 기관 안내가 필요
- 부산도서관이 직접 부산 내 인물, 공간(장소), 사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직접 조사를 진행해 컬렉션을 만들 수 있음. ‘국제

상사 컬렉션’ ‘삼락동 재첩 어부 컬렉션’ 등.

범위	유형	대응전략
생활문화사	도서	DB 구축
고고유물	박물관 보고서류	고고학 발굴 내용은 서비스에 부적합
전문연구기관 생산자료	도서류, 간행물	저작권 문제 때문에 원본은 구입, 기증 받아 부산에뜰에 비치 간행물은 수록 논문에 저작권이 있어 부산학아카이브에서 공개 곤란. 원본을 기증받거나, 링크 혹은 생산기관 안내 방법을 선택 필요
인물, 공간(장소), 사건	컬렉션	부산도서관 직접 수집 및 조사

2. ‘부산학아카이브’ 명칭 재고

1) ‘부산학아카이브’ 명칭의 의미

- ‘부산학아카이브’ 라는 명칭은, ‘부산학’ 의 ‘아카이브’ 라는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게 됨으로써, 학문적 성격을 강조하는 아카이브로 읽힘
- 학문적 성격의 강조는 자료수집 대상이 ‘부산학’ 관련 자료들을 중심에 두게 되며, 자연스럽게 이용자 역시 연구자를 상정하게 됨으로써 일반 시민들과는 거리감이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부산학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아카이브에 대해 “부산의 기억을 기록하고, 고품질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존한 지식허브”로 규정하고, 그 기능을 “부산의 행정, 역사, 문화, 사회 전반에 관한 오래되거나 소실 우려가 있으며 보존가치 있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발굴,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기
- “부산학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축적될 고품질 부산학 자료는 지역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접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교육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문화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부산학디지털아카이브’에는 부산학 관련 연구 자료들

의 축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부산학’ 디지털 아카이브로서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음. 명칭에 어울리는 아카이브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 관련 연구 자료들의 체계적 축적 있어야 함.

- 도서관 아카이브는 기관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좋음. 학문적 성격이 강조되는 아카이브보다는 도서관의 주된 이용자들이 일반시민인 만큼, 이들을 중심에 두고 지역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학아카브’ 라는 명칭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타 지역의 아카이브들은 주로 그 지역의 지역학연구센터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음. 강원학아카이브, 제주학아카이브, 전북학아카이브 등은 ○○○학연구센터에서 구축 운영

2) ‘부산학아카이브’ 명칭 변경

- 예시) 부산의 기억, 부산이야기(스토리)

3. 자료수집 전략

1) 수집정책의 수립

- 부산학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 명문화 필요
- 수집대상 기관, 수집주체와 역할, 수집 범위 및 내용, 수집방법, 수집자료 평가방법, 수집자료의 정리 및 DB화, 공개기준 등 자료수집에서 공개까지 필요
- 부산학아카이브 관련 각종 전문가 위원회 관련 업무 범위

구분	업무범위	구성원
부산학 연구기관 협의회	-부산 지역 부산학 관련 자료 발굴과 연구활성화 -각 기관의 자료 생산계획, 성과 등 정보 공유 -중복사업 방지	부산 지역 부산학 연구기관 아카이브 담당자
부산학 자료 평가위원회	-수집자료의 우선순위 결정 -부산학아카이브 범위 결정	부산학 아카이브 담당자 및 부산학 연구자
부산학아카이브자문위원	-부산학아카이브 구축, 서	부산학 전문 연구자

	비스, 활용 등 자문 -부산학아카이브 장·단기 사업 자문	
--	------------------------------------	--

2) (가칭)부산학 연구기관 협의회 신설

- 부산학아카이브를 위한 자료수집은 물론 부산학 자료의 발굴과 연구활성화를 위한 부산시 단위의 연구기관 협의체를 조직
- 이 조직은 제주학아카이브의 사례에서처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각 연구기관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노력
- 자료생산계획, 성과 등 정보를 공개하고, 중복사업과 행정·예산 낭비를 방지토록 함.

3) 자료 전수조사 실시

- VI장, VII장 자료수집 대상과 아카이브 범위에서 검토한 바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산학 관련 생산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

4) 자료생산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 자료수집 단계에서 자료생산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료수집부터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합의문을 만듦.

5) 수집방법 결정

- 자료의 유형, 디지털화 여부, DB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수집방법을 결정
- 수집방법은 경기도메모리의 방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자체수집, 협력수집, 연계수집의 세 가지 유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유형	내용
자체수집	-부산학아카이브 제작사업이나 수집전략에 근거해 단독으로 프로젝트 수행 -부산 내 공공기관 및 문화원, 개인 등의 협조를 받아 자원 수집
협력수집	-자료수집대상 기관에서 디지털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자료를 생산한 기관이 수집 및 디지털화는 했으나 시스템이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자원을 대상으로 함.
연계수집	-타 자료 생산기관이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아카이브 운영 중인 경우

	-기존 아카이브를 운영하거나, 혹은 부산학아카이브 체제로 재구축해 동시 활용
--	---

6) 수집자료의 평가

- 수집된 자료는 부산학 전문가와 아카이브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학 자료 평가위원회(가칭)’를 통해 평가를 진행
- 수집 자료의 보존가치, 이용가치 등 우선순위 결정
- 자료의 평가는 아카이브 범위와 적합, 부산의 생활문화사에서의 의미, 다양한 방식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함.

7) 서비스방식 결정

- DB화를 마친 자료에 대해 원문 서비스방식 결정
- 저작권에 제한이 있는 자료는 생산기관과 협의하여 DB 정보공개만으로 제한하고, 원문은 ‘부산애플’에서 원문 구입해 서비스토록 하고, 원문 공개가 가능한 자료는 생산기관과 협의하여 공개방식을 결정함.
- 수집방법에 따라 부산학아카이브가 직접공개, 자료생산기관과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

4. 서비스 전략

- 현행 타 지역학 아카이브와 부산학아카이브는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분류체계와 검색기능을 동시에 활용한 자료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KDC분류체계, 분과학문별 분류, 유형별 분류를 활용한 자료접근은 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짐.
- 오늘날 자료검색은 메뉴상 다양한 형식의 분류체계보다는 검색 분류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앞으로 부산학 관련 자료생산이 증가하고, 내용 또한 다양화할 것에 대비해 다양한 기준으로 검색분류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 수집자료의 검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기술 요소가 분류체계로 활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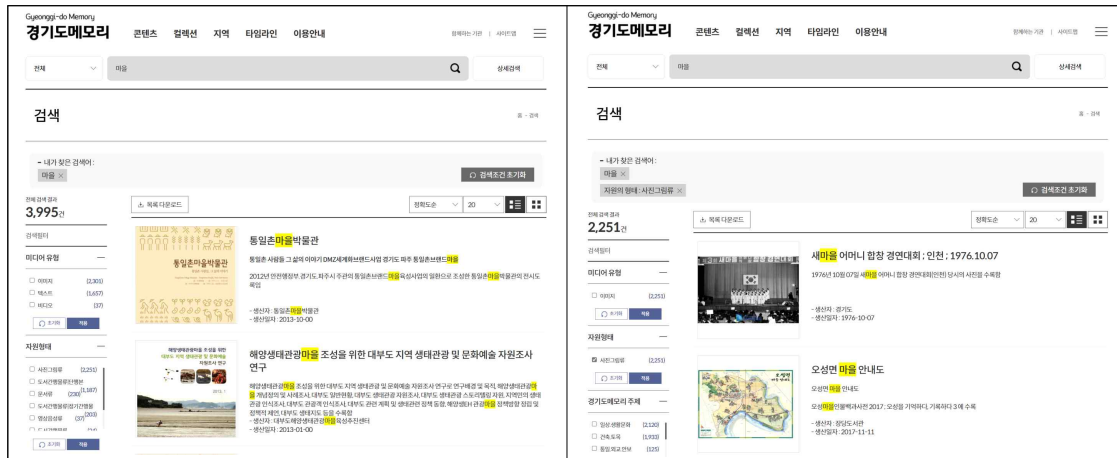


그림 23 경기도메모리 1차검색(좌), 패킷 기능 이용 검색(우)

5. 단계별 추진전략

1) 단기계획

	사업목표	추진내용	필요 인력
1년차	자료수집 시스템 구축	-자료수집정책 수립 -부산학 연구기관 협의회 구성 -부산학 자료 평가위원회 구성 -부산학아카이브 자문위원 구성 -자료생산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장·단기 계획 수립	1명
		-수집자료 전수조사(대상 기관 및 생산자료 파악)	1명
2년차	자료수집, 평가 및 정리 아카이브시스템 고도화	-연간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자료수집 및 정리 -수집자료 평가	1명
		-DB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개발 -데이터 모델 개발,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등 시스템 고도화	1명
3년차	DB 구축	-연간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1명

		-DB 구축 사업 총괄 -자료수집, 입력	
		-DB 구축사업 -사전 준비, 입력, 검증	1명

2) 장기계획

- 추진목표: 컬렉션 아카이브 구축
- 추진방향: 생활문화사 자료 가운데 도서 중심의 아카이브 구축 범위를 넘어선 인물, 공간(장소), 사건 등과 관련해 조사
- 수집자료의 성격: 컬렉션 아카이브 구축은 조사과정에서 도서 이외의 다양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 사진, 문서, 물건 등
- 아카이브 구축방향: 조사의 기본 자료는 텍스트 형식으로 간행하고, 그 외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물건의 원본은 박물관 등 보존기관에 위탁하고, 본 아카이브에는 이미지 파일을 탑재함.
- 주관 및 기간: 컬렉션 아카이브는 부산도서관에서 직접 주관하며, 2년 단위로 진행함.
- 필요 인원: 컬렉션을 전담할 수 있는 1명의 인력 필요

6. 인프라 구축

1) 인력정비

- 지역학 아카이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학 전문가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인력이 요구됨.

인력	업무내용	비고
1	-정책 수립 및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산학 연구기관과 업무협약 -DB 구축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개발, 데이터 모델 개발,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등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총괄
2	-전수조사, 자료수집, 정리, 입력, 검증 -DB 구축사업 추진	아카이브 수집 및 DB 구축
3	-컬렉션아카이브 구축 -콘텐츠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장기사업으로 4년째부터

	인력이 필요
--	--------

- 제주학아카이브와 경기도메모리에는 2인의 전문가가 아카이브만을 담당하고 있음.
- 현장조사나 공간적으로 넓은 지역을 조사할 경우, 시민아키비스트와 공동 작업 추진
- 부산학아카이브 또한 자료의 수집과 DB화, 서비스 등 아카이브 운영만이 아니라 지역 내 부산학 관련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담당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저작권 미해결 자료의 서비스 방안

- VI장에 정리된 연구기관과 생산자료 가운데 전문 연구기관, 미술관, 박물관 일부 자료에 저작권이 있음.
- 이 경우 자료의 기본정보는 DB에 입력하고, 원문서비스는 생산기관 혹은 부산도서관의 ‘부산애들’에 비치함.

Ⅷ. 부산학아카이브 활용 및 홍보 방안

1. 지역학 아카이브 활용방안

① 이용자 계층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이용자 계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

- 대다수의 지역학 아카이브에서는 연구자를 주요 이용자 계층으로 상정하고 다음으로 일반 시민, 학생 등을 이용자 계층으로 상정함.
- 부산학아카이브도 주요 이용자 그룹과 그 외 그룹으로 이용자 그룹을 층위별로 상정하여 서비스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에게는 부산학 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집약적인 축적, 나아가 축적된 연구성과의 서비스를 제공
- 부산학 관련 자료의 빅데이터화를 통해 학생 및 일반 시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산에 대한 이해 확산

②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통한 학생, 대중 및 전문인의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

- 학생 및 시민 교육 자료서비스
- 부산학 관련 자료들을 교육 콘텐츠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온, 오프라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아키비스트 양성 같은 일반 시민 교육에 활용

③ 부산학 관련 자료들을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자료 제공 서비스

- 이용자 계층(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 일반 시민, 전문가)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

④ 다중 검색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활용성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검색체계 구축

⑤ 답사·여행 등에 적합한 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지역의 경제력 확보를 통한 지역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

⑥ 부산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아카이브 구축

⑦ 라키비움형 서비스 제공

웹에서의 자료에 대한 접근은 물론, 부산학 관련 자료(실물)에 대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상설 전시, 기획전시, 체험 전시, 외부 전시 등 다양한 전시를 기획·개발하여 운영.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식과 정보에 대한 단순한 전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부산학아카이브 홍보 방안

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참여 방안 구축

- 홈페이지 구축, 유튜브 및 SNS 연동 홍보방안
- 다국적 언어, 매체를 활용한 홈페이지 구축
- 연령별 홍보내용 및 홍보방법 차별화
- 시민활동가, 청년활동가 육성 및 홍보

② 시민아키비스트 육성

- 부산의 생활문화를 경험한 당사자가 기록의 주체가 될 필요, 시민기록자 양성
- 교육과정-기초과정, 심화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 특별한 자격증 부여
- 활동-시민아키비스트는 개인 또는 그룹을 구성하여 지역의 생활문화사를 기록
- 시민아키비스트 교육과 활동은 도서관의 시민 교육과 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부산학아키비스트와 부산도서관의 시민 대상 사업 담당자와 연계하여 진행 필요